

이 발표논문집은 2007 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2-B00013)



**제2차 한러학생포럼 프로그램**

**“한·러 간 문화소통을 위하여”**

**Второй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студенческий форум**

**Корея и Росси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Культур**

일시: 2013년 11월 13일(수요일)

장소: 국제대학원 화상회의실 7층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05 환영사

14:05~14:15 축사: 알렉세이 말로레트코(Алексей Малолетко)

(러시아연방 CIS재외동포 국제 인도적 협력청 주한대표사무소 소장)

**<1부 발표> 14:15~16:15**

**사회: 기계형(한양대)**

14:15~14:40 [발표자1] 안톤 코로티긴(Антон Коротыгин, 서울대)

발표제목: 김기덕의 '섬'과 파벨 룬간의 '섬' 비교

14:40~15:05 [발표자2] 김진우(한양대)

발표제목: 러시아문학의 휴머니즘 - 체홉의 작은 사람들의 모습"

(Гуманизм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образ маленького человека у Чехова)

15:05~15:30 [발표자3] 다리야 토도로바(Дарья Тодорова 연세대)

발표제목: 한국의 스트릿댄스 문화

15:30~15:55 [발표자4] 이호진, 안종은(성균관대)

발표제목: 영화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 비평(Отзыв о фильме «Гагарин. Первый в Космосе»)

<휴식> 15:55~16:05

**<2부 발표> 16:05~17:45**

**사회: 찬나 발로드(서경대)**

16:05~16:30 [발표자5] 구서경(성균관대)

발표제목: "러시아문화의 거울 크릴로프의 우화(Зеркал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Басни И.А.Крылова)"

16:30~16:55 [발표자6] 율리아 고류노바(Юлия Горюнова 중앙대)

[발표제목]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류드밀라 올리츠키카야의 '메데아와 그녀의 자녀들' 작품에 나타난 가정의 원형"

16:55~17:20 [발표자7] 윤송이(고려대)

[발표제목] Увертюра из Российской поп-музыки

17:20~17:45 [발표자8] 안나 슐레포바(Анна Шулепова 한국외국어대)

[발표제목]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만찬> 18:00~21:00

## <목 차>

### Session I

|                 |                              |    |
|-----------------|------------------------------|----|
| Антон Коротыгин | 김기덕의 '섬'과 파벨 룬킨의 '섬' 비교      | 9  |
| 김진우             | 러시아문학의 휴머니즘 - 체홉의 작은 사람들의 모습 | 11 |
| Дарья Тодорова  | 한국의 스트릿댄스 문화                 | 15 |
| 이호진, 안종은        | 영화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 비평          | 19 |

### Session II

|               |                                                               |    |
|---------------|---------------------------------------------------------------|----|
| 구서경           | 러시아문화의 거울 크릴로프의 우화                                            | 25 |
| Юлия Горюнова |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류드밀라 올리츠키카야의<br>'메데야와 그녀의 자녀들' 작품에 나타난 가정의 원형 | 31 |
| 윤송이           | Увертюра из Российской поп-музыки                             | 39 |
| 안나 솔레포바       |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 47 |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я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В.Малолетко на открыт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форума**

(Сеул, 13 ноября 2013 года)

---

Уважаемые дамы и господа!

Уважаем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студенты!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режде всего, позвольте поздравить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с открытие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форума,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Ханьян» в рамках Недел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от души приветствую делегац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и надеюсь, что ваше пребыван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щение с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работающим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будет максимально продуктивным и содержательным.

Проведение Недел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и в его рамках студенческого форума, безусловно, является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в 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и наглядным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того, что многогранные связи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развиваются поступательно, динамично, причем круг вопросов, по которым мы сотрудничаем, неизменно расширяется.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в этом за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наших стран, что, как миниму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число россиян, в том числе студентов, растет, а, как максимум, говорит еще и о стремлении молодежи России не просто приехать в РК,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но и найти корейских друзей.

Студенческий форум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возможность вести и развивать диалог, который бы способствовал углублению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молодым поколением россиян и граждан РК,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взаимоуважения,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потенциала дружеских партнерских связей, возникших в отношениях наших стран за 23-летний период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остро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наряду с более тесны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наука, культур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значительное расширение контактов по линии гражданских обществ, молодежных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В.Путин в своем первом указе по вопроса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подписанном в день инаугурации 7 ма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звал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для России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азируется на совпаден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на общем стремлении народов обеих стран к обеспечению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регион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целом.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XXI столетии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дстоит совместно решать немало больших и сложных задач,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то,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мут в этом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наличие широ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молодежных обмено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ими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ведется активная проработка вопроса о подписани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признании сертификатов о высшем образовании и ученых степенях. Его появление поможет выве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и обеспечить его расширение до масштаб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характеру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Более серьез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явятся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в Сеуле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го центра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на площадке которого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не только форумы, но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молодежи наших стран, например, посвященные памятным, праздничным датам и другим знаковым событиям. Именно сегодня президенты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ланируют подписать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ах, которое станет основой для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Уверен, что проведение нынешне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ридаст новый импульс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по расширению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и послужит делу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бы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молодежью двух стран.

Я желаю вам интересного, плодотворного общения и новых идей, которые бы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развитию молодежных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 마음속에 숨겨있는 “섬”

### (김기덕 “섬”이라는 영화와 파벨 룬킨 “섬”이라는 영화 비교)

Антон Коротыгин  
(서울대학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 같은 점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의 유명한 김기덕 감독 “섬”이라는 영화 그리고 러시아 파벨 룬킨 감독의 “섬”이랑 비교하면 바로 이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김기덕의 “섬”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 영화는 시작때 부터 감정적인 음악으로 제 관심을 끌고 끝까지 이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섬”은 사랑에 대한 영화이지만 여러가지 외로운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와 사람이 외로움과 싸우는 것도 잘 보여주는 영화이다.

영화에 긴 대화를 별로 없어서 주인공에게서 소리 지르는 것과 짧은 표현밖에 못 들었지만 주인공의 표정과 가끔씩 너무 인상한 행동을 영화 분위기를 쉽게 느낄 수가 있다.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숲 속의 외진 길을 지나야 다가갈 수 있는 ‘섬’ 낚시터, 세상과 격리된 듯한 몽환적 분위기를 간직한 낚시터의 주인 희진은 낚시꾼들에게 낮에는 음식을 팔고, 밤에는 몸을 팔며 살아간다. 어느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애인을 살해한 전직 경찰 현식이 낚시터로 찾아들고 희진은 삶을 체념한 듯한 현식을 주의깊게 바라본다. 좌대에 짐을 푼 현식은 고뇌 끝에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지만 희진은 좌대 밑으로 밑으로 잠수하여 현식의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 자살을 막는다. 이 일을 계기로 그들 사이엔 묘한 교감이 생긴다.

낚시터에 검문을 온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마침 그 낚시터에 은둔 중인던 또 다른 수배자 하나가 도주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는다. 그 광경을 목격한 현식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상황을 참지 못한 현식은 낚시바늘을 입에 넣고 자해를 시도한다. 희진은 경찰을 따돌려 현식을 구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현식을 섹스로 치유한다. 희진의 섹스는 현식에게 있어 정신적 불안과 육체적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이 된다. 그날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그들은 평화로운 한 때를 보내지만, 현식은 희진의 집착적 사랑과 공간적 고립감을 견디지 못하고 떠날 결심을 한다. 그러나 현식은 희진을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는다. 그들은 서로의 미끼에

걸려든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고 예기치 못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다. 마지막 장면을 사실에 좀 이해 못했다. 상황을 좀좀 좋아져도 희진이 자살하게 되었다.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자기 행복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도 강조해야 것은 영화에 나온 호수와 자연이다. 영화에 나온 자연을 보면서 영화의 신비하고 공포한 분위기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한국 자연 배경도 볼 수가 있고 그 배경 속에 있는 한국인의 생활과 한국 문화도 볼 수가 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러시아 파벨 룬킨 감독의 “섬”,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다. 영화의 주인공 아나톨리 자기 친구 티혼 죽인 다음에 현식이처럼 섬에 들어오게 된다. 아나톨리는 자기 나쁜 짓을 깨닫고 하지만 현식이처럼 자살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용서를 받고 싶다. 여기서 바로 한국과 러시아 문화 차이점을 볼 수가 있다. 한국은 옛날 때 부터 불교에 믿는 나라라서 불교는 가르치는 대로 “자기 죄를 용서를 받고 싶다면 자기 피로만 받을 수가 있다” - 그래서 현식은 자기 나쁜 짓을 깨닫은 다음에 자살하는 결정을 내린다.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자기 죄를 깨닫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 주고, 좋은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아나톨리는 용서를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 주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아나톨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아나톨리는 사람들에게 이 생활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병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영화 끝에는 아나톨리는 티혼 장군이랑 만나는 장면에서 아나톨리 용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영화 둘 다에서 많은 아름다운 자연 배경을 볼 수가 있다. 이 자연 배경통해서 영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다. 김기덕 “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주인공에게 동정을 할 수 있고 영화의 신비하고 공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반면에 파벨 룬킨 영화에서는 러시아 춥고 눈 많은, 러시아 위험한 날씨를 보여주는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아나톨리 마음을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아나톨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것 얼마나 어려운지도 느낄 수 있다.

이 두 영화 비교에서 결론을 내리면 영화 이름 “섬” 숨겨 있는 비유는 사람 마다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섬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이 마음 섬에서 자기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기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 섬에서 쌓은 일은 다 해결 안 하면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이일은 해결해서 편하게 살든지 자기 목숨을 끊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지 계속 마음 섬에서 자기 나쁜 일을 쌓고 항상 마음 아프고 힘든 생활을 하든지 알아서 선택을 해야겠다.



-“섬” – 시작 때 부터 관심을 끌다 -



“섬”은 사랑에 대한 영화이지만 여러 가지 외로운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와 사람이 외로움과 싸우는 것도 잘 보여주는 영화이다.



희진 - 낚시터의 주인은 낚시  
꾼들에게 낮에는 음식을 팔고,  
밤에는 몸을 팔며 살아간다.



형식 -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애인을 살해한 후 경찰 전직하고  
낙시터에 들어오게 된다



오랫동안 보지 못 한 러시아 자연 – 파벨 룬긴 “섬”.



아나톨리 아버지



죽은 애인 - 형식의 죄.



아나톨리 최 - 주긴 티혼 친구







티혼 장군 다시 만난 아나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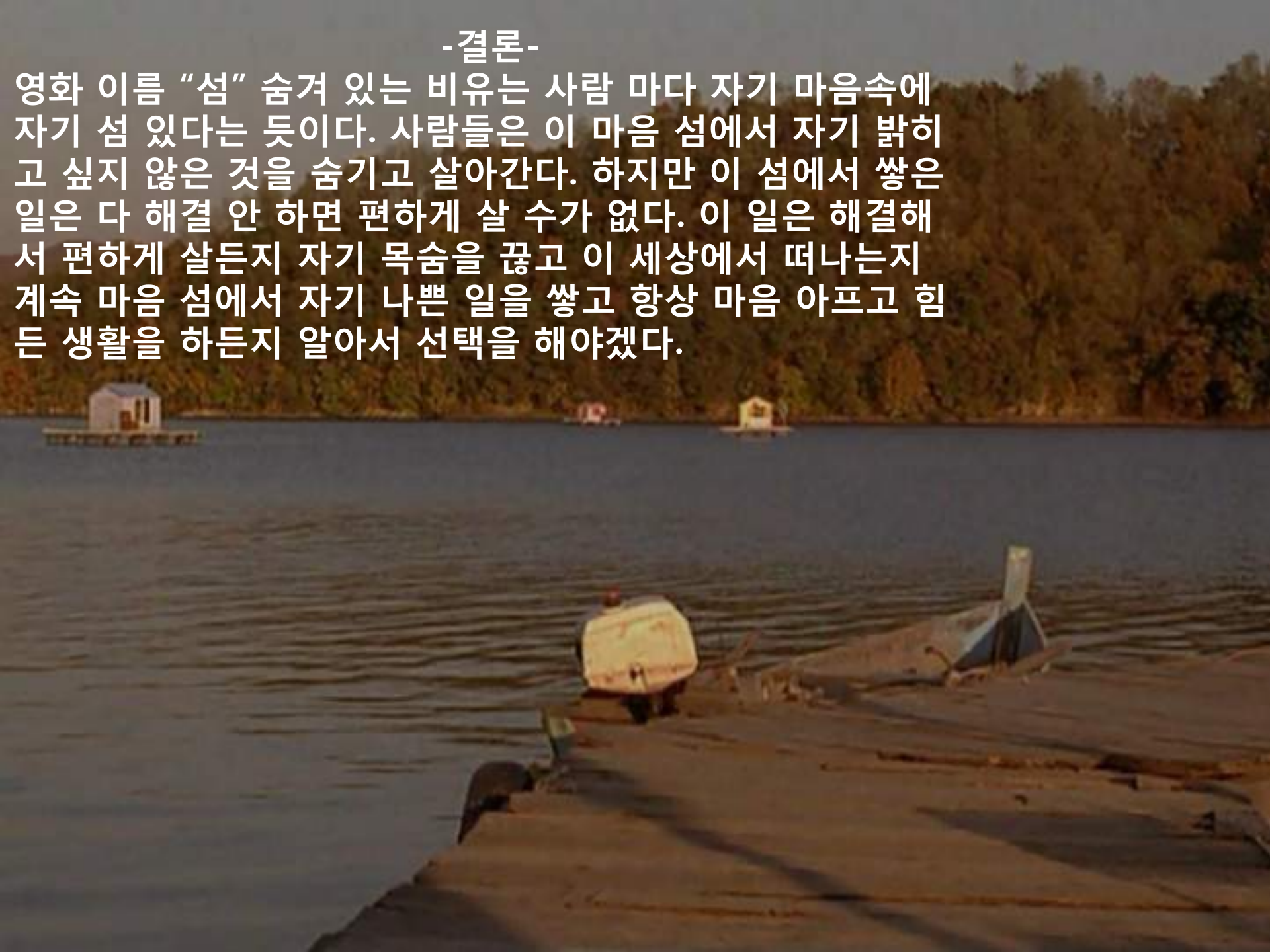
# 경찰 전직하는 희진과 형식





-결론-

영화 이름 “섬” 숨겨 있는 비유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 섬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이 마음 섬에서 자기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기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 섬에서 쌓은 일은 다 해결 안 하면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이 일은 해결해서 편하게 살든지 자기 목숨을 끊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지 계속 마음 섬에서 자기 나쁜 일을 쌓고 항상 마음 아프고 힘든 생활을 하든지 알아서 선택을 해야겠다.



## **Гуманизм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образ «маленького человека» у Чехова.**

김진우  
(한양대학교)

Один из особенносте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гуманистична, в центре её – человек. Русские писатели XIX века создали образ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маленького человека». Это и Пушкин – повесть «Станционный смотритель», и Гоголь – «Шинель», и Достоевский – «Бедные люди». Свой образ маленького человека есть и у Чехова.

Разные писатели по-разному подходили к этой теме, но их объединяет то, что они пытались вызвать сочувствие к своему герою. Сочувствие вызывает обычный станционный смотритель Самсон Вырин, у которого богатый барин увёз дочку в Петербург. Он беден, его унижают и оскорбляют, даже бьют, но он сохраняет чувство собствен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Он пытается вернуть свою дочку, а когда богатый офицер даёт ему деньги, он бросает их на землю – у него есть понятие о чести, честь не продаётся.

Безрадостна жизнь маленького человека Гоголя – Акакия Акакиевича, который безропотно переносит все обиды и страдания. Потеря шинели – для него катастрофа. Он вызывает жалость.

Герой Достоевского Макар Девушкин – тоже маленький человек, но его можно назвать личностью: он читает, размышляет о жизни, Достоевский показывает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героя.

Все эти герои, при всей их разности, вызывают сочувствие.

Но в творчестве Чехова маленький человек показан иначе: его маленький человек не вызывает сочувствия, а вызывает совсем другие чувства. Тако

в герой рассказ «Смерть чиновника» или «тонкий» из рассказа «Толстый и тонкий».

«Смерть чиновника» – это один из ранних рассказов Чехова, он был написан в 1883 году. Сюжет его очень прост и хорошо известен.

Мелький чиновник Иван Дмитриевич Червяков в театре чихнул, случайно попав на лысню сидящего впереди него генерала Бризжалова. Он извинился, генерал же не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я на такой хотя и неприятный, но пустяковый случай, о котором вскоре вообще можно было бы забыть. Но чихнувший герой не даёт генералу забыть об этом случае, раздражая его бесконечными извинениями. Чихнувшему Червякову кажется, что он недостаточно извинился, что генерал, может быть, зол на него, поэтому он продолжает свои извинения. В конце концов это так надоедает генералу, что он, не выдержав, затопав ногами, крикнул на него: «Пошёл вон!!» Червяков же так расстроился, что от переживаний умер.

Чехов показывает забитость мелкого чиновника, для которого сановник является каким-то высшим существом. Он считает себя виноватым в данной ситуации и боится мести «важного лица» - генерала, (хотя генерал даже не думает о нём). Страх его и чувство вины перед генералом так велики, что он постоянно извиняется. Такое его абсурдное поведение приводит к смерти: «Придя машинально домой, он лёг на диван и ... помер». В том, как Чехов описывает его смерть, нет трагизма. О смерти сказано, как о чём-то обыденном, будничном, и даже есть ирония. Червяков сам виноват в своей смерти: его никто не оскорблял и не обижал – ему только кажется, что генерал затаил на него злобу. Смерть явилась результатом «пустых», надуманных переживаний Червякова, поэтому вызывает у читателя скорее недоумение. Самоунижение героя не вызывает у читателя участия и сочувствия. Становится даже досадно, что человек может так унижаться из-за пустякового повода.

Конечно, у Чехова есть и другие герои, которые вызывают сочувствие, например, Ванька Жуков из рассказа «Ванька» и другие герои, положение которых безысходно. Но Червяков не относится к ним. В его с

итуации нет безысходности, его «страдания» комичны, они на пустом месте. Вспомним, что идеалом Чехова был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ыдавливает из себя по капле раба». Червяков же сам делает себя рабом, так как постоянно унижается. Поэтому он не вызывает нашей симпатии, а может вызвать только отвращение. Интересно, что и фамилию герою Чехов даёт унижительную – Червяков, от слова «червяк», который ползает, пресмыкается, а Червяков унижается.

Другой рассказ, в котором показано, как чиновничество лишает геро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 это «Толстый и тонкий». Сюжет рассказа прост. Когда-то в одном классе учились два мальчика. Прошли годы, они повзрослели. И вот они случайно встречаются на вокзале. Перед нами два старых друга – Миша (толстый) и Порфирий (тонкий), которые оба искренне рады встрече, вспоминают школьные годы и шалости. Потом каждый рассказывает, кто как живёт: тонкий (Порфирий) женился, у него есть сын, они живут не очень богато, но всё таки выживают, толстый дослужился до высоких чинов.

От тонкого и толстого по-разному пахнет: от тонкого - «ветчиной и кофейной гущей», а от толстого – дорогим вином и одеколоном. Это показывает разный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героев: толстый более благополучен и состоятелен.

Как только тонкий узнаёт о служебном положении своего друга, что друг детства не только превзошел его, а превзошёл очень сильно – он имеет чин тайного советника – с ним произошла сразу перемена. «Тонкий, вдруг побледнел, окаменел,... лицо его искривилось. Сам он съежился, сгорбился, сузился», он почти потерял дар речи. Перед нами уже не два человека, а два чина – и между ними непреодолимая пропасть. Естественный, непринуждённый разговор двух друзей меняется. Толстый пытается сохранить дружеский тон, он говорит: «- Ну, полно! Для чего этот тон? Мы с тобой друзья детства – и к чему это чиновничество!» Но тонкий уже разговаривает с ним, не как с другом, а как с начальством (он называет его «вы-с», «ваше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о»). Его поведение резко меняется: он начинает раболепствовать перед толстым, подхалимничать, угодничать.

Искренняя радость была недолгой, приятная беседа друзей прервалась, когда они узнали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друг друга, несовместимый с статусом. Перед высшими чинами нужно преклоняться, а дружба между начальством и подчинённым не возможна. К добру не приведёт. Так считает Червяков, и поведение его становится неестественным, он выражает трепет, страх, и подобострастие к высокому чину, ведёт себя заискивающе. Так же ведут себя и члены его семьи: сын и жена.

Последняя фраза рассказа «Все трое были приятно ошеломлены» возвращает нас в начало рассказа, но имеет уже другое значение: тонкий, его жена и сын ошеломлены «милостью» толстого – тем, что тайный советник подал ему руку на прощание. (В начале рассказа толстый и тонкий были ошеломлены от радости встречи). «Тонкий пожал три пальца (а не всю руку), поклонился всем туловищем» и подобострастно «захихикал». Такое поведение тонкого вызывает неприятные ощущения у толстого, почти отвращение, так что его «стошнило».

Название рассказа построено на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и: «толстый» для читателей XIX века значило «богатый», а «тонкий» –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беден или испытывающий материальные затруднения.

Чехов показывает, как разница в социальном положении разводит людей, возникает чиновничество, а не дружба, унижаясь перед вышестоящим, перед чином, человек теряет достоинств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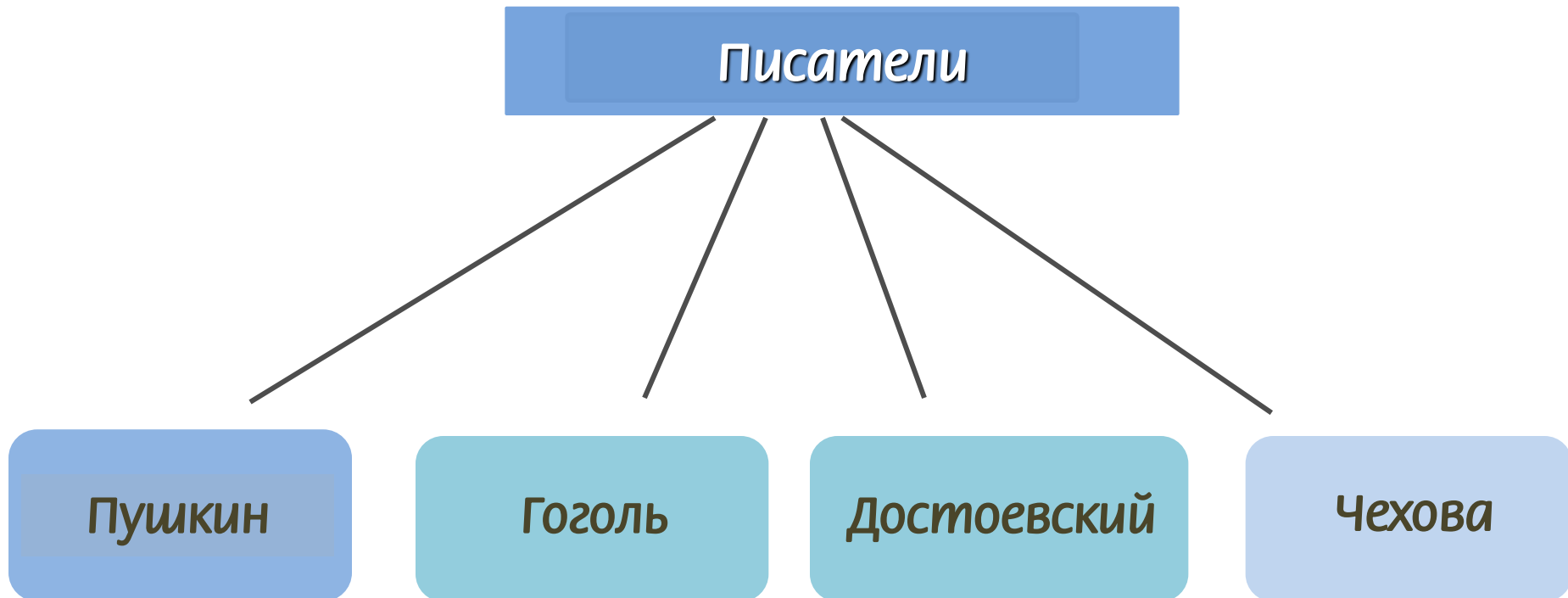
Какой урок гуманизм даёт нам Чехов? Он даёт великий урок гуманизма. Чехов показывает нам, как не должен вести себя человек. Человек, по имени Чехова, никогда, ни при к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не должен терять чувства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Чехов считал, что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по капле выдавливать из себя раба», он осуждает рабское поведение своих героев в рассказах «Смерть чиновника» и «Толстый и тонкий». Творчество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Чехова – призыв к духовно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и раскрепощению человека. В этом я вижу его гуманизм.

# Гуманизм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образ «тапёвского человека» у Чехова

Докладчик : Ким Чжин У

■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гуманистична,  
в центре её — человек.**

---



## ■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гуманистична, в центре её — человек.

- Разных писателей объединяет то, что они пытались вызвать сочувствие к своему герою у читателя.
- Маленький человек Чехова не вызывает сочувствия, а вызывает совсем другие чувства:  
Тонкий из рассказа «Толстый и тонкий»  
Червяков из рассказа «Смерть чиновника»

Толстый и  
тонкий

Смерть  
чиновника

■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гуманистична,  
в центре её — человек.**



Смерть  
чиновника

■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гуманистична,  
в центре её — человек.**

- ◆ Забитость + Чувство вины  
= Абсурдная смерть
- ◆ Чехов описывает его смерть без трагизма.



Забитость

Чувство  
вины

Абсурдная  
смерть

■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гуманистична,  
в центре её — человек.**

- Червяков, согласно своей фамилии, пресмыкается как червяк.

Смерть  
чиновника



■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гуманистична,  
в центре её — человек.**



Толстой и  
Чехов

■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гуманистична,  
в центре её — челове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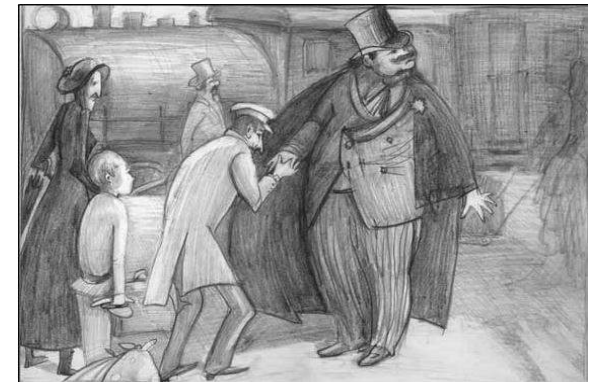


Толстой и  
монки

## ■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гуманистична, в центре её — человек.

- Разница в социальном положении разводит людей, возникает чиновничество, а не дружба.

Толстый и тонкий



■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гуманистична,  
в центре её — человек.**

---

- «Человек не должен  
терять чувство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 ■ Чинопочитание в Корее

---

- ❖ Основой является культур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тилей речи и манеры поведения
- ❖ Чинопочитание – важнейшее условие успеха в карьере.
- ❖ Дорогие подарки вышестоящим.
- ❖ Влияние чинопочитания на отношения.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ВНИМАНИЕ

## 한국의 스트릿댄스 문화

Дарья Тодорова

(연세대학교)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국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경제, 정보 통신 기술, 건설 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생산 등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영향력 또한 엄청나게 큼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등의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취를 보여줍니다. 한국영화를 보는 국내 관객은 급증했고 해외 많은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각종 문화상품의 수출입이 활발해졌습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는 매년 한국 영화와 요리에 관한 축제와 열리고 있고 젊은 사람들 중에선 K-Pop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문화가 넓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국의 우수한 분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릿댄스 문화입니다. 스트릿댄스는 무엇일까요? 스트릿댄스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대중적인 춤으로 전문적인 댄스 스튜디오가 아닌, 길거리와 클럽 등에서 비롯된 춤입니다. 스트릿댄스는 1970년대 초 미국 뉴욕의 힙합 문화와 함께 영화, 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보잉, 팝핑, 락킹, 와킹과 같은 뉴스쿨 장르들을 일컬어 스트릿댄스라고 하는데, 그 역동성과 자유로움으로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스트릿댄스의 매력은 다른 춤 장르와 달리 즉흥적인 프리스타일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작만 배워도 자기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장르를 섞어서 음악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릿댄스를 주제로 한 영화는 한 두 가지가 아니고 (StreetDance 1,2; Step Up 1,2,3; Footloose; Honey 1,2 등), 유명한 옷 기업들은 스트릿댄스의 매력을 인정하고 스트릿 댄서들을 촬영해서 CF를 찍고 스트릿댄스를 주제로 한 쇼도 많이 방송됩니다.

제 한국과의 만남 또한 스트릿댄스 덕분이었습니다. 원래 춤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러시아에서부터 춤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 또한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과 스트릿댄스는 동떨어진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스트릿댄스는 한국에 1980년대 처음 소개된 이후로 방송, 영화,

CF, 만화 등을 통해 대중화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 이후 여러 세계 대회에서의 연이은 우승으로, 한국의 스트리트댄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와 동호회, 동아리, 학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트리트댄스 인구 또한 매우 많습니다. 대학교와 고등학교마다 스트리트댄스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때로는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며 주말마다 홍대 등지에서 많은 이벤트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한국어를 배우기도 전이었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조차도 할 수 없었던 저였지만, 이러한 한국 댄서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 어떤 러시아 댄서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특강을 하러 유명한 한국 파핑 댄서가 오는데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스트리트댄스와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특강 통역을 도와주면서 한국 스트리트댄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 댄서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한국 스트리트댄스 문화를 직접 체험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에 저는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 꾸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러시아에서 통역했던 한국 댄서에게 연락을 했고, 좋은 학원을 소개받아 왁킹이라는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스트리트댄스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현재 대학원 공부 때문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트리트댄스 학원을 다니는 시간은 저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춤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예 다른 분야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업 전에 일찍 와서 좁은 학원의 구석을 찾아 혼자서 연습하는 모습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짧은 시간이라도 비어 있는 연습실을 찾아 연습하는 모습은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을 잘 따라하려 노력하고 잘 안 되면 고쳐달라고, 이해 못 하면 다시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입니다. 수업 중에 쉬는 시간이 있어도 쉬지도 않고 혼자서 방금 했던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수업 끝나기 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안무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집에 가서 또 연습합니다.

선생님들의 태도도 저한테 너무나 놀랍고 새로웠습니다. 자기가 여러 춤 행사나 팀 트레이닝 때문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모두 제자라고 생각하고 잘 챙겨주고

실력이 조금이라도 늘면 같이 기뻐하고 잘 안 되면 걱정 해주고 신경 써주고 학생들을 독려합니다. 자신의 일을 단지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활동을 같이 하는 가족 같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트릿댄스의 문화를 소개해주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학원에서만 춤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행사를 보러 가고 배틀에도 나가고 공연도 합니다. 이처럼 스트릿댄스를 학원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회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 또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의 공연을 준비했을 때, 이런 한국 스트릿댄스 문화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밤을 새워 연습하는 등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학원, 동아리 열정적인 문화 덕분에 한국이 스트릿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습니다.

비보잉은 한국 스트릿댄스의 종류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틀오브더이어 는 흔히 이야기하는 비보이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전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비보이 대회 중 하인데 2001년 한국 비보잉 팀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팀이라는 수여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비보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생 기록될 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한국 비보이들이 각종 세계 댄스 대회를 휩쓸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비보이 댄스 뮤지컬이 호황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스트릿댄스는 질적·양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보이 강국이라고 부르는 한국은 올해 'R16 KOREA 2013 세계 비보이 마스터즈 대회'를 열렸고 레드불 비씨 윈 월드 파이널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보이 바람'이 해외 진출을 위한 문화상품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스트릿댄스는 하나의 주류 문화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나 클럽에서 행사를 벌이는 것뿐만 아니라 TV에서 방송하는 스트릿댄스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된 '댄싱 9' 프로그램은 춤을 주제로 하는데 스포츠 댄스, 현대 무용, 발레뿐만 아니라 비보잉, 왁킹, 바핑 등 여러 가지 스트릿댄스의 종류를 하는 댄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는 문화 예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제1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스트릿댄서들을 단지 마니아 수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추세는 스트릿댄스가 이제 주류 문화 상품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지만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한국 스트릿댄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스트릿댄스는 아직 한국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러시아 스트릿댄스 문화도 발달하기 위해서 스트릿댄스 분야에서의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 댄서들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스트릿댄스 문화를 배우고 한국 댄서들은 러시아에 가서 강의를 하고 대회를 열고 접촉이 필요합니다.

# 스트릿댄스, 또 다른 한류

다리아 토도로바  
연세대학교

# 한국의 업적을 이룬 여러 분야

- 경제
- 정보 통신 기술
- 건설 산업
- 조선 산업
- 자동차 생산
- 영화
- 음악



# 스트리트댄스



# 스트리트댄스란?

-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대중적인 춤으로 전문적인 댄스 스튜디오가 아닌, 길거리와 클럽 등에서 시작된 춤.

# 스트리트댄스의 종류

- 비보잉



# 스트리트댄스의 종류

- 팝핑



# 스트리트댄스의 종류

- 락킹



# 스트리트댄스의 종류

- 왁킹



# 대중문화 속의 스트리트댄스

- 영화



- 오디션 프로그램



- CF



# 스트리트댄스와 나의 만남









# 스트릿댄스의 현재

-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비보잉
  - 각종 세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2001년, 배틀 오브 더 이어 등)
  - 비보잉 댄스 뮤지컬 등의 관광상품.
  - 세계적 대회의 한국 개최.  
(R16 , Redbull 등.)
- 스트릿댄스를 주제로 한 TV프로그램.
  - 댄싱9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Отзыв о фильме «Гагарин. Первый в Космосе»

이호진, 안종은

(성균관대학교)

Фильм «Гагарин, Первый в Космосе» посвящён жиз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ого лётчика-космонавта. В фильме показывается, как Гагарин готовился к полёту, его отношения с другими космонавтами, и важные моменты его жизни, которые Гагарин вспоминает во время полёта в космосе. Режиссёр фильма, Павел Пархоменко, удачно реализовал сценарий фильма, вставив реальные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кадры, чтобы усилить у зрителей глубокое впечатление об этом великом событии в истории. Этот фильм идёт только 108 минут. Очень короткий фильм. Вы знаете, что такое 108 минут? Это время полёта Гагарина в космос. И за это время мы можем увидеть как формировалась личность первого космонавта и основные этапы его подготовки. Фильм затрагивает разные темы, такие как чувство зависти, любовь к семье и бесконечное стремление к мечте.

Фильм начинается с момента семичасовой готовности перед запуском ракеты. Главный конструктор, Королёв Сергей Павлович, с волнением проверяет всю систему. Он говорит: "Не торопитесь! Всё честно проверьте! Честность прежде всего! Если ошиблись – придите и доложите, от вас зависит, пойдём мы завтра в новую эру или нет!" Его слова раскрывают ожидания всей России и вызывают у зрителей напряжённость. Потом на экране показывают Юрия Гагарина с Германом Титовым. Из тысячи лётчиков-истребителей выбрали лучших из лучших, и Гагарин с Титовым были членами легендарной двадцатки. Они все стремились быть первым, потому что как Герман говорит «тысячи из тысяч будут летать, но запомнят только первого». Здесь Герман проявляет свою зависть к Гагарину. Это естественное чувство, потому что люди по всему мир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мнят только Гагарина. Никто не обраща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на второго космонавта-дублёра. Борьба за право быть первым была интенсивная, н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Герман показал, что они остаются друзьями. Он говорит Гагарину:

«Если ты не вернёшься, то дорога в космос для нас всех будет закрыта навсегда». Так он косвенно показывает своё переживание за судьбу друга.

Второй темой является стремление к мечте. Это самая главная тема, так как весь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подготовке к первому космическому полёту. Их бесконечная подготовка была борьбой за первенство, в которой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 Гагарин. В фильме Гагарин часто вспоминает о тренировках в отряде космонавтов. Они прошли через много жестоких испытаний, включая подготовку к перегрузкам и состоянию невесомости. Все члены отряда должны были преодолеть очень большие нагрузки на свой организм. Но Юрий Гагарин, конечно, отлично выдержал эту долгую и труд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 стал героем мира. Он храбро исполнил свою миссию. Юрий не боялся полететь в космос, потому что это означало исполнение его мечты. Его знаменитые слова «Поехали!» доказывают, что он ожидал этого момента всю свою жизнь. Его побед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он не бросил свою мечту на полпути, а посвятил жизнь достижению своей цели.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Гагарин – отличный символ победы.

Последняя тема фильма – любовь к семье. Юрий Гагарин был не только первым космонавтом, но и хорошим сыном и мужем. С детства он мечтал стать лётчиком и часто играл со своим братом Борисом в самолётики. Его отец сначала был против, но, увидев как сын стремиться стать лётчиком, разрешил ему уехать в город. Гагарин, как хороший сын, спокойно, но твёрдо убедил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Родители поверили в него и, чтобы не подвести их, Юрий всеми силами старался выдержать многолетнюю подготовку. Есть моменты, когда можно увидеть, какая трудная жизнь у жены и родителей лётчика и офицера. В фильме, когда Главный конструктор Королёв разговаривает с сотрудником, принимающим сигналы с орбиты, тот говорит, что он бы не пустил своего сына лететь в космос. Все в то время считали, что полёт в космос для человека означает большую опасность. Родители и жена Гагарина позволили своему любиму полететь в космическом корабле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у них была вера в Гагарина.

У нас осталось много глубоких впечатлений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фильма. Во-первых, мы восхищаемся смелостью Юрия Гагарина. Он не боялся космоса и его неизвестности. Он просто учился, занимался спортом, и терпел все тяжёлые тренировки, чтобы достичь своей мечты.

У всех должна быть своя мечта. И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должен стараться ради того, чтобы его мечта осуществилась. Для этого каждому нужна смелость. Мы

должны не бояться провала. Есть русская пословица «Кто не рискует, тот не пьёт шампанское». Эта пословица означает, ч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хочет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ю мечту, должен смотреть только на цель и не должен думать о провале. Мы думаем, что эта русская пословица истинна. В этом фильме Юрий Гагарин доказывает нам, что эта пословица правильная. Нам повезло, что мы могли поучиться смелости у Юрия Гагарина. У нас тоже есть мечта. В будущем мы хотим помогать развит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До просмотра этого фильма, мы боялись русских и не были уверены, что сможем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в России. Но теперь у нас нет боязни, а есть решимость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ю мечту.

Во-вторых, мы восхищаемся тем, что Юрий Гагарин дал народам великую надежду. До того, как Юрий Гагарин полетел в космос, в мире никто не летал в космос. Люди думали, что полететь в космос невозможно. Но Юрий Гагарин превратил невозможность в возможность. Он первый в мире слетал в космосе и благополучно вернулся на землю. Посмотрев на успех Юрия Гагарина, люди очень обрадовались. Все русские стали гордиться тем, что первый космонавт, который слетал в космос, – русский. Юрий Гагарин подарил своему народу счастье. Благодаря Юрию Гагарину Россия получила мировую славу. Кроме того, другие страны получили надежду, что их граждане тоже могут полететь в космос. Это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мировую историю. Поэтому мы должны высоко оценить его заслугу.

В-третьих,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фильму мы осознали, что мы должны неутомимо стараться, если хотим, чтобы наша мечта сбылась. Мы извлёки из этого фильма важный урок. Есть корейская пословица " Бог помогает только тому, кто всегда старается ". Эта пословица означает, ч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мы должны стараться беспрестанно. Мы думаем, что личность Юрия Гагарина – это хорошая иллюстрация этой пословицы. И мы вспоминали эту пословицу, когда смотрели фильм. Мы ещё студенты, и у нас уже есть мечта. Но иногда нам лень учиться и заниматьс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Теперь мы будем бесконечно стараться,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шанс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ю мечту.

Наконец,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фильму мы поняли, что, чтобы достичь большого

успеха, усилия всех людей должны быть объединены. В этом фильме, чтобы осуществить первый полёт в космос, старались не только Юрий Гагарин, но и Главный конструктор Королёв Сергей Павлович, другие кандидаты, и все специалисты. Мы считаем, что первый выход на орбиту космического корабля с человеком на борту – это достижение не только Юрия Гагарина, но и всех людей, связанных с ракетой. Первый полёт в космос означает большой шаг в развитии всего человечества. Поэтому мы полагаем, что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тва должны быть объединены усилия всех люд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люди в мире мало заботятся о других и часто поступают как эгоисты. На наш взгляд – это неправильная тенденция. Мы должны думать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и помнить,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достичь этого развития только одному.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тва приведёт к улучшению нашей жизни, поэтому для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тва нам надо стараться всем вместе.

Мы восхищаемся тем, какой вклад сделал Юрий Гагарин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жизнь. Юрий Гагарин хотел полететь в космос не для личной славы, а для пользы обществу и человечеству. И после полёта Юрий Гагарин вёл больш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Поэтому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его считают героем России. Не так давно в Корее тоже появился первый космонавт. Это женщина. Её зовут Ли Соён. Она вторая азиатская женщина-космонавт и также получила мировую известность. Благодаря ей,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а третьей страной, в которой первый космонавт является женщиной, после Иран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 Корее сначала тоже было много претендентов, которые хотели стать первым космонавтом Кореи. Была очень большая конкуренция. Но, как и в фильме про Гагарина, было выбрано только два кандидата. Кроме Ли Соён был ещё один космонавт-мужчина по имени Ко Сан. И сначала первым космонавтом Кореи выбрали Ко Сана. Но потом было раскрыто, что он разгласил секрет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 этому проекту. Это значит, что он нарушил присягу, поэтому решение было отменено и вместо него выбрали Ли Соён. Она полетела в космос по счастливой случайности. Её полёт был успешным. И 18 марта 2008-го года она смогла войти в историю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первый космонавт.

Из фильма мы узнали, что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серьёзно относился к выбору своего первого космонавта. Кандидатам приходилось не только хорошо показывать себя на тренировках, но ещё от них требовалось хорошее здоровье, красивая биография,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ая внешность. Сперва Герман лучше прошёл все

медицинские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спецтренировки, но его родословная была не такая блестяща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Гагариным. Отец Гагарина был плотником, а мать работала на молочной ферме. Он был из крестьянской семьи. А Герман Титов был из семьи учителя и носил странное имя, которое отец дал ему в честь пушкинского героя «Пиковой дамы» Германа. Наконец, фотография Юрия Гагарина больше понравилась руководителю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 Хрущёву, и поэтому Юрий был выбран вместо Германа как первый космонавт. Судя по всему, оба космонавта были отобраны серьёзно, смотрели не только на их физические данные, но и на все эпизоды их жизни и моральные качества.

К сожалению, наша история показала, что при выборе космонавта в Корею больше обращали внимания на физическое здоровь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чем на моральные качества. После полёта Ли Соён все корейцы ожидали, что она сделает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осмонавтики Кореи. Но она не выполнила свою роль и уехала в США. Она получила много денег за полёт и в дальнейшем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делала доклады за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Она даже отказалась от 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и выбрала американ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Она сейчас американка. Там, в Америке вышла замуж за американца, и учится в аспирантуре бизнесу. Она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ла для Родины, хотя Корея вложила много денег в неё. Поэтому в Корею осуждают её поступок. Мы тоже думаем, что она должна была вести общ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на Родине, как это делал Юрий Гагарин. За это мы уважаем Юрия Гагарина, всю свою жизнь посвятившего служению Родине.

Юрий Гагарин был отличным лётчиком, космонавтом, хорошим мужем и сыном. Его судьба трагически оборвалась в 1968 году, когда он погиб во время испытательного полёта. Фильм «Юрий Гагарин. Первый в космосе» –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фильм, который снят по согласию 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емьи космонавта: жены и двух дочерей. Режиссёр Пархоменко хотел поставить этот фильм необычно, так как у него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азать всем людям в мире, как состоялся полёт первого космонавта.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он справился с задачей. Этот фильм был создан для тех,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ей, историей покорения космоса 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ой.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всем корейским студентам, которые изучают историю, рус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у, обязательно посмотреть этот фильм. Когда вы посмотрите этот фильм, вы ещё раз

задумаетесь о своей цели, обретёте смелость и получите правильные ориентиры в жизни. Если вы хотите стать уважаемым человеком, обязательно посмотрите этот фильм и возьмите пример с Юрия Гагарина!

Смерть не смогла подчинить себе его мечту. Его неустанное стремление к полёту в космос открыло новую космическую эру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Он был не только надеждой, но и побед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а ещё он стал несравненным по храбрости первым космонавтом человечества.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этот фильм. В нём было столько новой для нас информации. Теперь мы понимаем, почему русские ценят и любят своего первого космонавта Юрия Гагарина.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Юрий Гагарин останется навсегда в памяти человечества, и все вечно будут помнить дату – 12 апреля 1961 года.

# Отзыв о фильме «Гагарин. Первый в Космосе»

Ли Хо Чжин (4 курс)  
Ан Джонг Ын (2 курс)

# Index



*О фильме*



*Борьба за первенство*



*Стремление к мечте*



*Любовь к семье*



*Наше впечатление*



*Заключение*

*О фильме*



CONTENTS

1





Contents

## *О фильме>>*

- Как Гагарин готовился к полёту
- Его отношения с другими космонавтами
- Важные моменты его жизни
- Режиссёр фильма - Павел Пархоменко
- Фильм идёт только **108** минут





Contents

*Темы*>>

- Чувство зависти
- Любовь к семье
- Бесконечное стремление к мечте





Contents

# *Королёв Сергей Павлович*>>

Честность прежде всего!  
Если ошиблись –  
придите и доложите,  
от вас зависит, пойдём  
мы завтра в новую эру  
или нет!





Contents

*Зависть*>>



vs.



**тысячи из тысяч будут летать, но запомнят  
только первого**



Если ты не вернёшься, то дорога в космос  
для нас всех будет закрыта навсегда



# Стремление к мечте >>

- Самая главная тема
- Подготовка была борьбой за первенство
- Прошли через много жестоких испытаний
- Гагарин отлично выдержал долгую и трудную подготовку



Contents

# Стремление к мечте>>

**Поехали!**



**Его побед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он не бросил  
свою мечту на полпути, а посвятил жизнь  
достижению своей цели**



# Любовь к семье>>

- Гагарин был хорошим сыном и мужем
- Как хороший сын, спокойно, но твёрдо убедил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 Родители поверили в него





Contents

# Любовь к семье>>



**Родители и жена Гагарина позволили своему любиму полететь в космическом корабле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у них была вера в Гагарина**



Contents

Впечатления>>



Смелость Юрия Гагарина



Contents

# Впечатления>>



**Юрий Гагарин дал народам великую надежду**



Contents

# Впечатлени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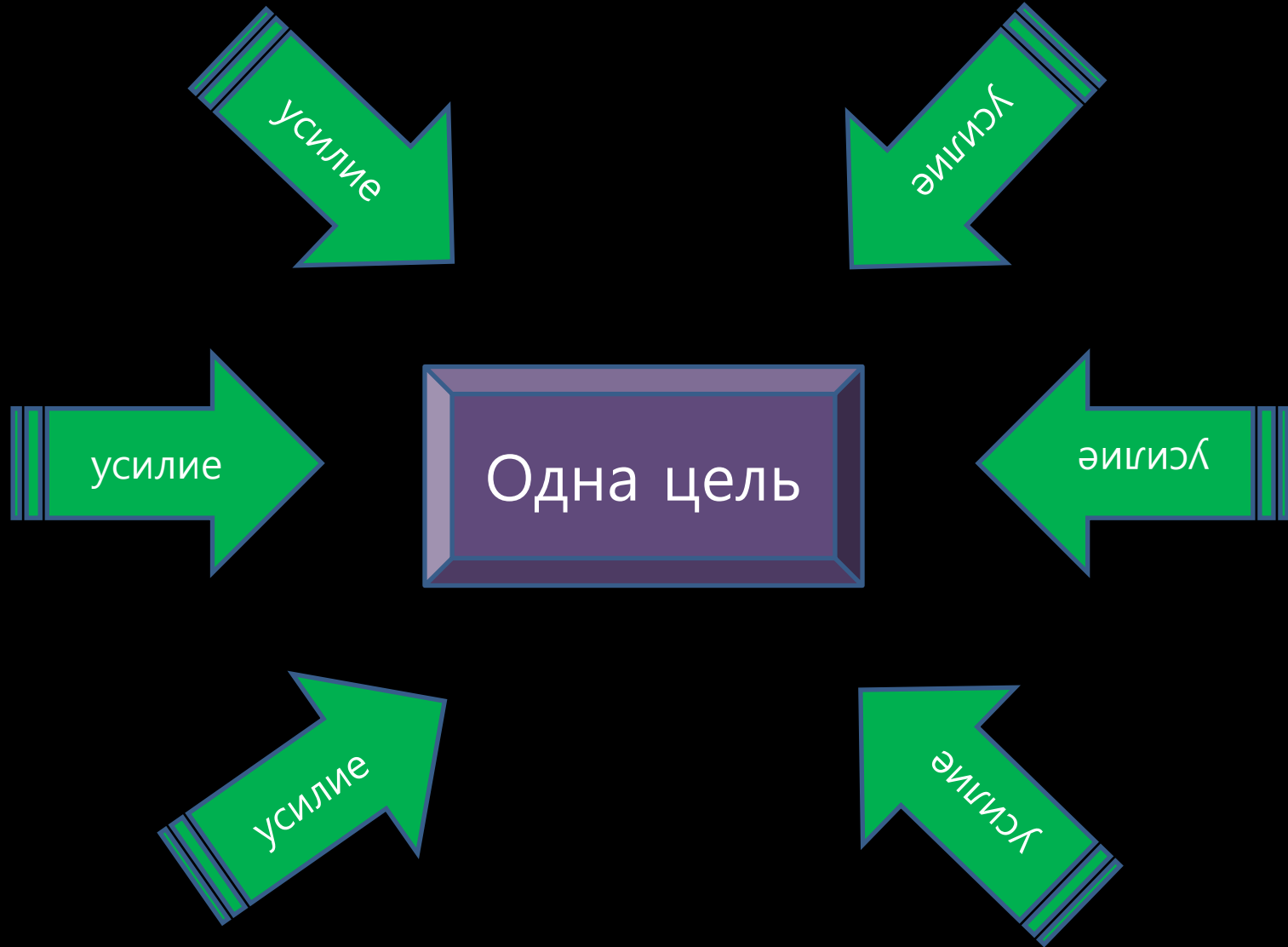


**Юрий Гагарин всегда старался, чтобы своя мечта  
сбылась**



Contents

# Впечатления>>





Contents

# Впечатления>>



вклад



**Юрий Гагарин сделал вклад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жизнь**



Contents

# Впечатления>>



Первый космонавт Южной Кореи  
Ли Соён



Второй кандидат  
Ко Сан



Contents

Впечатления>>



Юрий Гагарин соревновался с Германом Титовым



Contents

# Впечатления>>



vs.



Первый космонавт Южной Кореи  
Юрий Гагарин

Первый космонавт Южной Кореи  
Ли Соён



Contents

заклучение>>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вам посмотреть  
этот фильм!!**



# Зеркал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Басни И.А. Крылова

구서경  
(성균관대학교)

## 1. Кто такой Крылов?

Иван Андреевич Крылов – самый знаменитый русский баснописец 19 века. Конечно он, как и другие литераторы того времени, писал и пьесы, и повести, но имел особо блестящие успехи в сфере басен. Он не был первым баснописцем России, но имеет самую большую известность. Его часто называют «русский Эзоп» или «русский Лафонтен». Он написал более 200 басен за 30 лет, и сегодня, если любой русский человек услышит его имя, то сразу вспомнит его басни.

В России имя Крылова стоит в ряду имен самых любимых народом поэтов, и даже более известно чем имя первого баснописца – Эзопа. Его слава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рубежами России, он знаменит в мире, хотя в Корее о нем мало кто. Строки Крылова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в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Например, в известном американском романе «Садовник<sup>1</sup>», есть сцена, где посол России цитирует басни Крылова. Это наглядно показывает, какое место занимают крыловские слова в русской речи. Великий русский поэт К.Н.Баятшков сказал, что «Его басни переживут века!», и этот вывод оказался пророческим. Хотя они написаны 200 лет назад, но множество фрагментов из них осталось жить в русской речи, и в русской речи и сегодня люди часто цитируют слова Крылова.

---

<sup>1</sup> Jerzy Kosinski, Being There, 1971 (Будучи там; 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 Садовник, Кор. пер. – 찬스 가드너, 그곳에 가다.)

## 2. Как крыловские слова стал крылатыми

Почему Батюшков был уверен в том, что басни Крылова переживут века? Что приводило его к этой мысл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язык. Язык басен Крылова очень простой,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яркий и ёмкий. Поэтому и детям, и взрослым легко и интересно их читать. Крылов был знаток разговорного народного языка и его художник. Он был первым русским автором, который ввел басни на арену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русский» слог. Поэт-декабрист В.К.Кюхельбекер справедливо оценил роль его басни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Мы, то есть Грибоедов и я, и даже Пушкин, точно обязаны своим слогам Крылову.»

Народность творчества баснописца не только заключается в его языке, но и в мудрости и остроте сатиры. Остроты самого Крылова были известны его современникам, пользовались популярностью и становились темой анекдотов. Некоторые современники даже считали, «что лично Крылов был выше своей печатной славы». В.А.Оленина в своих записках вспоминала: «Я осмелилась раз, еще в юных летах, заметить Крылову, зачем он выбрал такой род стихотворений. Отвечал он мне: “Ах, фавориточка: ведь звери мои за меня говорят”».

Чтобы глубже понять эти слова нужно смотреть на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 фоне эпохи. Он хотел критиковать пороки того времени, но самодержавие и строгая цензура ограничивали свободу слова, и у Крылова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резко и прямо высказывать свое мнени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вынужденного молчания в связи с откровенным разоблачением, он выбрал жанр басни, чтобы обходным путём иронизировать над пороками человечества и общества. Эта косвенная сатира в баснях Крылова помогает мягко, но точно разоблачить чужие недостатки, и наоборот, в чужих недостатках узнавать свои и стать лучше.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Белинский заметил, что «дело в том, что в лучших баснях Крылова нет ни медведей, ни лисиц, хотя эти животные, кажется, и действуют в них, но есть люди, и притом русские люди».

В баснях Крылова высмеиваются жадность, легкомысленность и глупость, но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меют не только бытовой и мор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У него есть басни на социальные темы и исторические темы. Учитывая это, творчество Крылова можно метафорически назвать зеркалом культуры и взгляда на ценности.

Ведь его басни служили учебниками нравственности и мудрости для народа. Поучительность басен Крылова так хорошо была осознана его современниками, что даже его кончина стал анекдотичным событием. Поэт Нестор Васильевич Кукольник шел за гробом Крылова. «Кого это хоронят?» - спросил у него прохожий. «Министра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Разве граф Уваров скончался?» «Это не Уваров, а Иван Андреевич Крылов». « Но ведь Уваров - министр, а Крылов был баснописцем». «Это их смешивают, – ответил Кукольник. – Настоящим министром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был Крылов, а Уваров в своих отчетах писал басни».

Выше сказанные эпизоды жизни Крылова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сама его жизнь обогащена анекдотичными случаями, в которых отражаются ред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его ума, вкуса и таланта. А его басни – с их народностью, легкозапоминающимся языком, поучительностью и остротами, – до сих пор беспрестанно растаскивают на цитаты.

### **3. Афоризмы из басен Крылова**

Характер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русской речевой культуры являются афоризмы. Что такое афоризмы? Это закрепившиеся в речи краткие выражения, взятые из литературного источника. Нередко такие выражения называются еще крылатыми словами. Их частое цитирование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фактом, что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 литературоцентричная. Вместе с религией, природой, историей и т.д, литература - одна из наиболее важных вещей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Ещё с 18 века в России читать и писать литератур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считалось признаком культурного человека. И в наши дни нередко кинофильмы создаются на основ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в школе учат анализироват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тексты. Вследствие та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уважения к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слову, за коммуникацией между русскими стоит литература как общее знание и взаимосвязь. Этим знанием нужно обладать, чтобы понять, о чём идет речь. Примеров таких прецедентных высказываний и персонажей бесчисленное множество. Такое явление, как цитирование поэзии-классики, отличает русскую культуру речи от корейской, где источник цитаты – массовая культура, например, к-поп или телепередачи, жизнь которых так коротка.

Как выше упомянуто, многие выражения из басен Крылова стали крылатыми. Цитаты из басен Крылова, наряду со строками Пушкина, самые упоминаем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ечи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ностранцам, в том числе и корейцам, изучающим русский язык будет полезно знать и употреблять в своей речи слова Крылова.

Показательным произведением является «Лебедь, Щука и Рак».

«...Лебедь рвется в облака,  
Рак пятится назад, а Щука тянет в воду.  
Кто виноват из них, кто прав, — судить не нам;  
Да только воз и ныне там.»

Из этой басни возникло два афоризма: «Лебедь рвется в облака, рак пятится назад, а щука тянет в воду» и «А воз и ныне там». Не только первая фраза, а также и заглавие этой басни применяются дл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разброда, отсутствия согласованности в каком-нибудь деле. Последняя строка просто создана для вечности, — неодобрительное выражение о не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е, о задаче, которая не решается.

Не менее известна басня «Ворона и Лисица». В ней лисица обманывает ворону, применяя лесть, чтобы заполучить сыр. Она хорошо отражает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усиливает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животных 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читателя лисица — символ хитрости, ворона — символ растяпы, разини. А в Корее она наоборот, мистическая, мудрая птица, и в то же время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несчастья. Крылов использовал древний сюжет, впервые появившийся у Эзопа, но благодаря Крылову, этот образ стал известным в России. Из этой басни вышло такое нравоучительное высказывание: «Уж сколько раз твердили миру, что лесть гнусна, вредна; но только все не впрок, и в сердце льстец всегда отыщет уголок».

Образ вороны используется ещё в басне «Ворона» из которой в широк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вошло выражение «Ворона в павлиньих перьях». Так говорят о человеке, который присваивает себе чужие достоинства, бесполезно играет высокую, несвойственную ему роль, и поэтому попадает в смешное положение.

Бесчисленные цитаты из басен Крылова расходились по России и становились на века крылатыми. Они содержат в себе национальный взгляд на

ценности и типичные жизненные ситуации,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пороки человечества. У каждого русского по сюжетам басен есть свои примеры из собственного опыта. В силу этого, басни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и в коммуникации, помогая говорить намеками.

Стоит исследовать не только сами цитаты, но и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баснями образы животных. Они отражают русскую природу 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арода о животных. Например, волк и лисица – одни из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встречающихся в баснях персонажей, как и в русской природе, олицетворяют хитрость и глупость. А ягнёнок – символ невинного, по сути православного народа. («Волк и Ягненок») Муравей – трудолюбивый; стрекоза – легкомысленная. («Стрекоза и Муравей»)

Эти образы, включая взятые у Эзопа или Лафонтена, стали известными по всей России благодаря Крылову. Раз став известными, они обратно воздействуют на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Когда человека называют названием животного, слушатели, носител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без объяснения поймут, какого человека намерен описывать говорящий. Нет таких животных, воплощающих русскую душу до такой степени как «звери» у Крылова, за него говорящие. Ведь в его баснях «медведь – русский медведь, курица - русская курица».

Несмотря на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и заслуги баснописца, к сожалению, в Корее его имя еще не имело достаточных шансов быть оценённым. Первое опубликование перевода было в 1991 году, но это не прямой перевод, а через японский. Только лет 10 назад издали прямой перевод 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большинства басен Крылова. Учитывая высокое положение в литературе и культуре, нужно изучить басни Крылова шире и подробнее. Надеемся, что имя Крылова и его слова, чаще зазвучат в Корее, как, например, имена Достоевского и Толстого.



*Зеркал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Басни И.А. Крылова*

# И.А. Крылов



Баснописец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19 в.

Русский  
Эзоп

Русский  
Лафонтен

Его басни  
переживут века!  
- К.Н.Батюшков

# Крылов в «Садовник»





*Литературный  
источник*

The diagram consists of a large gray circle containing two smaller white circles with gray borders. The left circle is labeled 'Литературный источник' and the right circle is labeled 'Речь'. A blue arrow points from the left circle to the right circle, with the word 'Цитирование' written below it. The word 'Афоризмы' is written in large bold letters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also three blue curved lines on the left side of the large circle.

*Цитирование*

***Речь***

***Афоризмы***

# Литературоцентричная Страна

---

Религия

Литература

Природа

# Источник Афоризмов

---

☒ Россия ☐ Корея

**Поэзия**  
**Классика**  
**Роман**  
**Пьеса**

# Источник Афоризмов

---

☐ Россия ☒ Корея

Сериал

К-поп

Масс Культура

Гэг-шоу



**БАСНИ  
ДЕДУШКИ  
КРЫЛОВА**



РИСУНКИ  
П. РЕПКИН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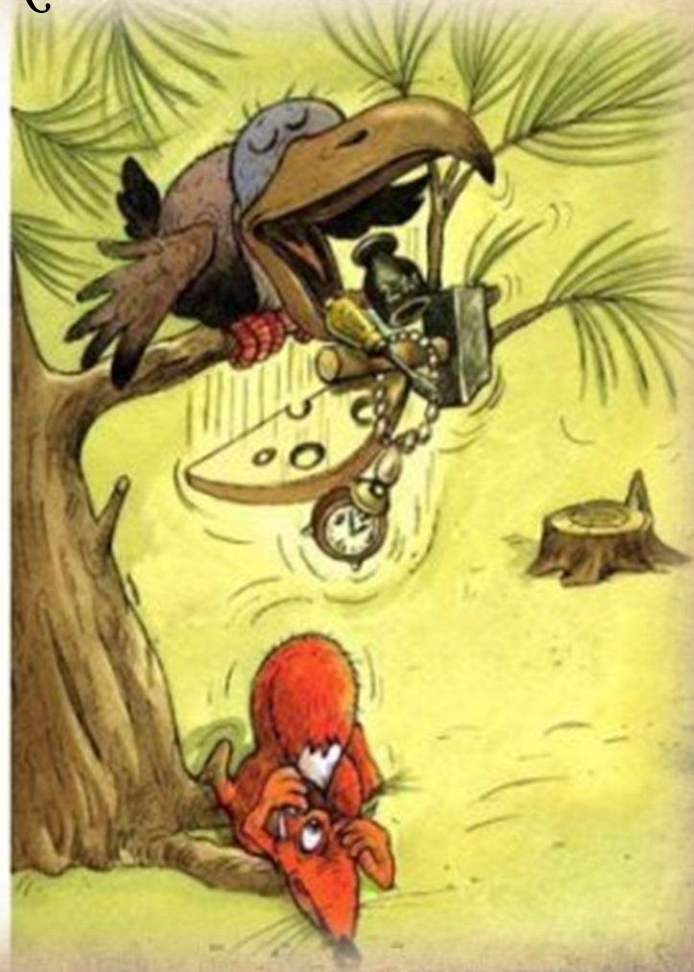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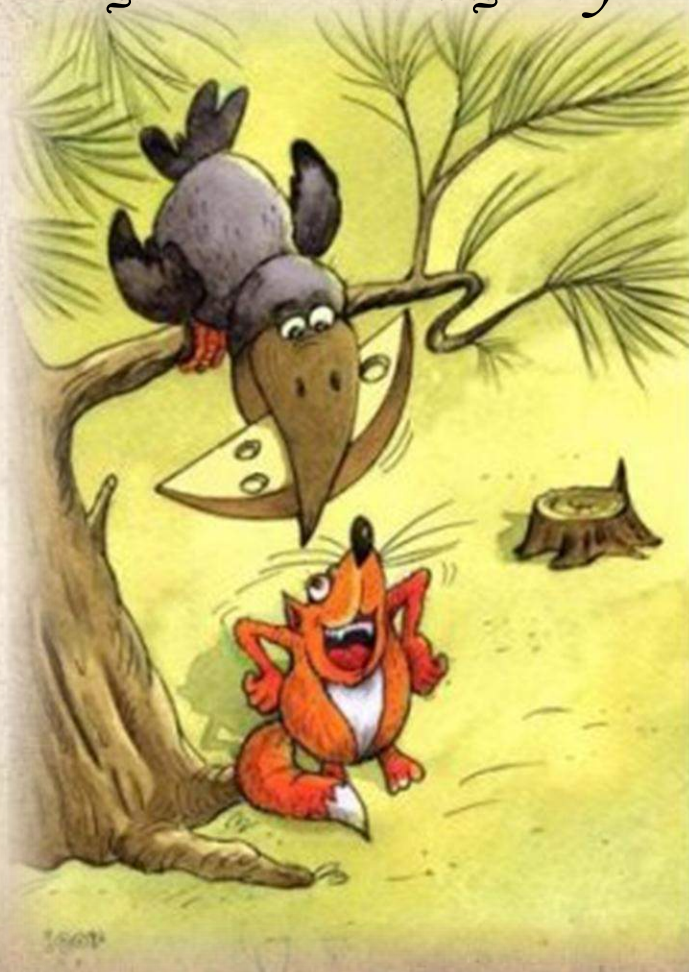
Лебедь рвется в облака,  
Рак пятится назад,  
а Щука тянет в воду.  
Кто виноват из них,  
кто прав, - судить не нам;  
Да только воз и ныне там.

- Лебедь, Щука и Рак



Уж сколько раз твердили миру,  
что лесть гнусна, вредна;  
но только все не впрок,  
и в сердце льстец всегда отыщет уголок.

- Ворона и Лисица



*И кончились ее затеи тем,  
Что от Ворон она отстала,  
А к Пávaм не пристала.*

*Ворона в павлиньих перьях  
- Ворона*



# Природа Двух Стра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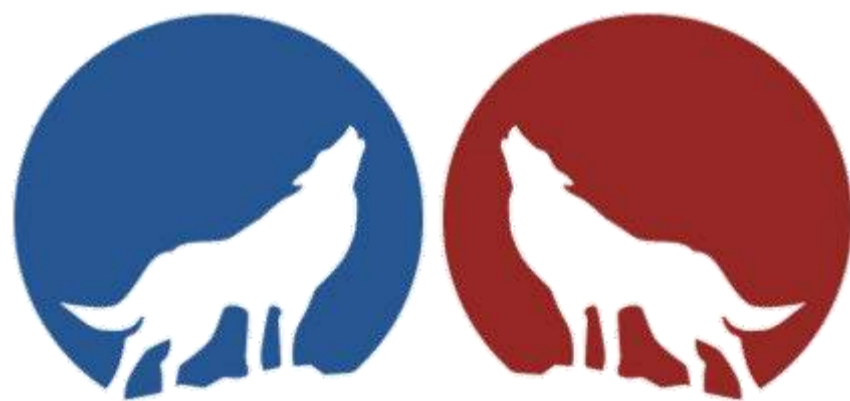
● Россия ○ Коре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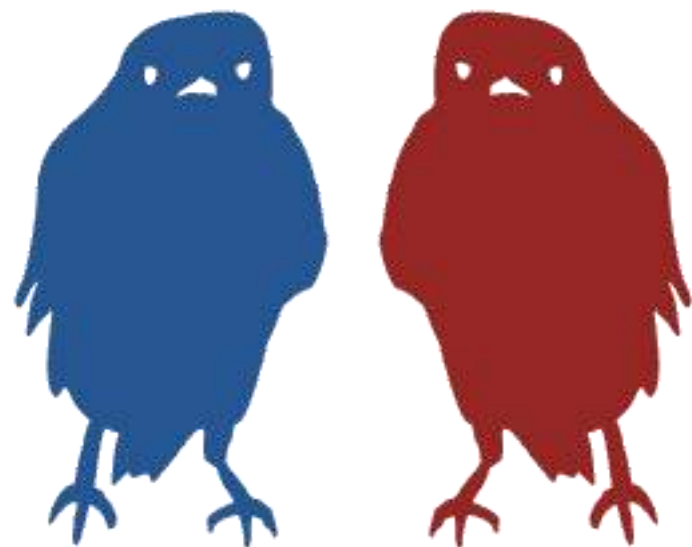
Соловей  
Собака Курица  
Ягнёнок  
Медведь Волк Ворона  
Пчела Лисица Зме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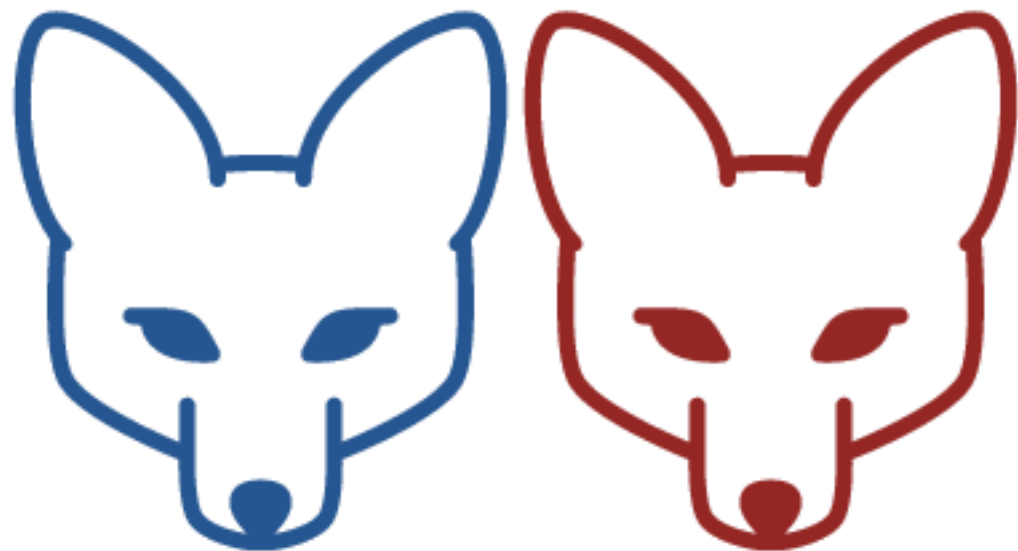
# Природа Двух Стран

☐ Россия ☒ Коре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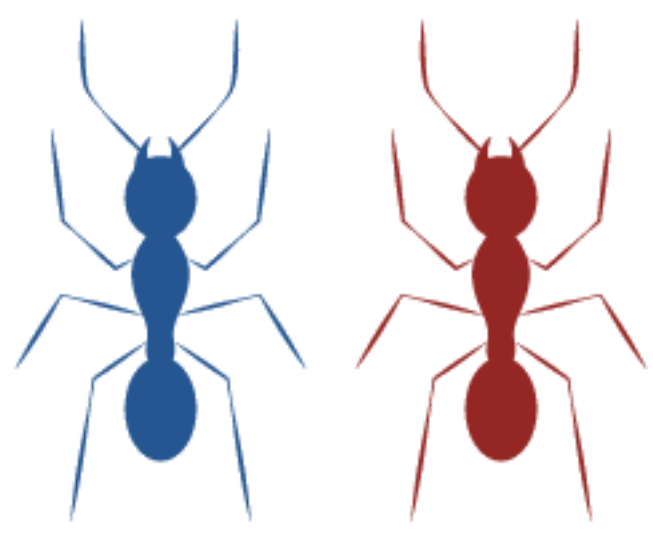
Черепаха Тигр Кошка  
Змея Собака Фазан  
Сорока Свинья Ворона  
Журавл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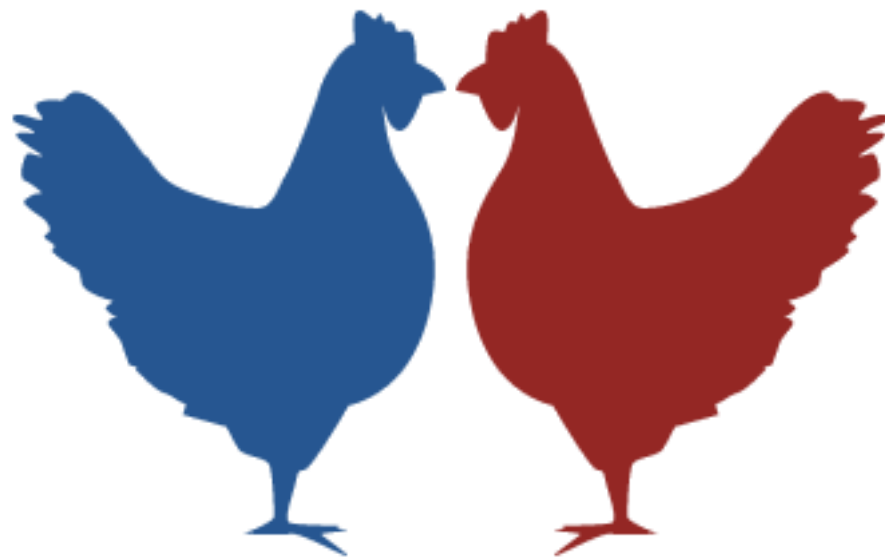












# *Зеркал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взгляд на ценности*

*“В баснях Крылова  
медведь – русский медведь,  
курица – русская курица.”*

# Крылов в Корее

---



*Спасибо!*



## 박경리 작품에서의 집의 원형<김약국의 딸들> 그리고 류드밀라 울리썸까의 <메데이아와 그녀의아이들>

Юлия Горюнова  
(중앙대학교)

### 1. 문학 원형

용어는 그의 일반화 된 젊은, 도입 원형 철학자 용에서 유래 되었다. 그의 의미는 프로토타입, 초기 이미지, 아이디어. 원형 <집단 무의식>의 깊이에 있고, 원형은 타고 난 정신 구조와 보편적인 상징의 기초를 형성 한다. 또는 영원한, 형성한 인류의 감정과 생각. 철학자 용이 말한 가장 중요한 원형이다. - 어머니, 아이, 노인 및 몇몇 다른 사람.

용어는 20세기 사용에서 <원형>은 언어 및 문학 연구의 확산을 포함하여 상당히 확대되었다. 원형은 언어학과 문학에 재연구 되었다.

신화와 문학 사이 관련 되어있다. 문학 평론가 블라디미르 마르코프는 원형의 세가지 필수성에 대해 말했다. 첫 번째는 일반성이다. 두 번째는 만능성, 그리고 반복성이다.

연구가 발사코바의 기사에서 원형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썼다:

- <시간을 초월한 이미지>(햄릿, 돈후안, 돈키호테);
- 영웅의 종류 <어머니, 아이, 등>;
- 이미지 - 상징들, 종종 자연의 것 (꽃들, 바다).

현대 문학 작품에서 처음에 저작권의 발상에서 시작한다. 문학 원형은 종종 작품에서 나타내어진다. 문학 원형은 작가의 사상으로부터 나온다. 원형의 예로는 <집>, <도로> 그리고 <아이>. 이 보기는 문학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다.

### 2. 집의 원형

20그리고 21세기에서 집의 원형 이해는 특히 중요하다. 인간은 크게 그들의 고국의 생활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 박경리의 소설에서의 일제 감정기 >. 반응순응 시대와 구 소련의 붕괴. 일련의 사회적 폭발, 전쟁, 혁명, 경제혼란, 생활의 각계 각층의 기술화는 도덕성의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했다. 사람들은 강한 존재의 토대를 찾고-

그리고 만약 타락하지 않을 경우 대자연에서 실제생활의 아이디어와 가족과 집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들의 <<공간>>과 친숙한 세계의 손실은 국가의 분리, 토지와 주택의 강탈로 이어진다. 집은 지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영혼의 응답은 진지하게 안락하고 평온한 장소 또는 반환을 찾는 욕망이다.

### 3. 소설< 김약국의 딸들>그리고 <메데이아와 그녀의 아이들>에서의 문학 원형 이미지

박경리의 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작품의 깊은 상징과 이미지를 주목해야 한다. 소설의 장면, 강창골과 통영은 모두 물과 바다 사방에 둘러 싸여있는 반도에 위치해있다. 바다, 물은 원형 이미지이다 - 탄생의 상징, 새로운 삶의 열정, 새로운 인생의 시작 뿐 만 아니라, 시간의 상실, 건망증, 죽음, 죽음의 통로의 상징이다.

윤의 작품들에서는 물은 종종 의식의 상장으로 나타내어집니다.

<<통영(지금은)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출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그러니 만큼 바다빛은 맑고 푸르다.>>

우리는 또한 바다의 상징을 류드밀라 울리츠카야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그녀의 여주인공 메데이아 멘데스는 페오도씨야의 해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대가족이 오는 그녀의 집은 시골에 있다.<<두 개의 산맥, 오히려 갑자기 하강 내선의 전망과 마을에 바다와 고대 요새의 유적 먼 플랩 구별 만 급성 장의 산 그리고 맑은 날씨에... 볼 수 있는 마을.. 조카들 중 한 명이 말한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 사실상 세계관에서 최고의 전망은 <메데이아의 화장실에서 열립니다.> 이 문맥에서 화장실의 언급은 깨끗한 원상태의 것과 바다의 자연적인 요소, 자연과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메데이아>의 바다는 - 휴식의 장소 (옛 소련 시민을 위한 크림은 모든 연합 건강 휴양소, 요양지로 나타내어 진다. 안락한 인생, 따뜻한 태양, 몸과 영혼의 회복의 조용한 흐름의 상징이다. 조카와 메데이아의 친척은 여기로 지향한다. 하지만, 박경리 소설에서 바다는 생계로, 또한 고문으로 그리고 종종 살인자로 나타내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연 어업에, 혹은 어업과 관련된 사업에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바다가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씨앗 생산자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빈곤, 기아,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영적인 관계의 손실의 결과로 나타내어진다.

바다 이미지의 이러한 잔인한 예감은 불운 때문이다. 이 불운은 전체 소설 <김약국의 딸들> 약사 김씨의 가족들을 위압한다. 이것은 한국에서 슬픈 사건으로 충돌 및 사람들 및 20대 초

세기에 있는 일본점령의 영향과 학대와 투쟁의 년과 관련 있다. 사실 한 가족을 예를 들어, 저자는 시련 동안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운명을 보여준다. 저자는 약사 김씨의 딸들에게 다른 특성들을 주면서, (용숙(24)-근면적인, 하지만 욕심이 많은, 용빈(21)-목적달성을 하는, 지혜로운, 용란(19)-아름다운, 하지만 무지한, 용옥(17)-착한, 믿음성 있는, 용해(12)-아버지가 좋아하는) 저자는 독자들에게 어려운 사회 및 정치적인 상황의 영향을 받고 개인의 개발의 방법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작품에 큰 가치는 어머니의 원형 이미지.

어머니의 원형은 많은 발현을 가진다. 이것은 아마도 어머니, 할머니 또는 어머니의 의미로 비유적인 의미로는 신일 수 있다. 용에 말에 의하면 어머니의 상징 뿐만 아니라, 이것들에 “구원에 대한 욕망을 표현: 천국, 하나님의 나라.”(용빈 과 용옥은 기독교인이다) 상실의 것 들: 교회, 대학, 국가, 하늘, 땅, 숲, 바다와 달. 풍요와 다산은 어머니의 상을 의미한다. (예제로는 한실택은 딸 결혼식을 위한 지참을 수집한다.)

보통의 엄마는 박경리의 소설에서-한실택, 약사 김씨의 아내이다. 그녀는 각 딸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지만 그녀의 시도는 무의미 해지고 불행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또 다시 약의 세력의 지배로 인한 불운으로 전체 한국인으로서는 가족 때문이다.

어떤 즐거운 사건은 폐허, 나쁜 소식, 또는 희망의 축소된 그림으로 끝납니다. 더하여, 그는 거의 항상 앞 나쁜 징조의 긍정적인 발전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의 강한 상징으로 나타난다. 소설의 전체는 우울한 신비주의로 가득 차 있다. 결혼식 전에 아픈 어머니 용숙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식에 입을 한복이 잘못 오려진다, 결혼식 장면은 적의 배가 오는 것으로 끝난다.<<그러니까 1910년 8월 29일에 치욕적인 한일 합병 조약이 발표되었다.>>,영화의 결혼식 날에 <<“이거 모래 베타이다! 물베타는 맞아도 모래베타는 처음인데?”>>(<<이런 날 시집가는 가씨나 풍파대기 많겠다.>>),희생하는 동안 물로 배가 항해하기 전에 센다이를 훔쳐, 결과로 한 배가 침몰하고, 선원들이 죽고, 가족들은 유모 없이 굶주리고 있다.

그 당시, 딸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나라의 힘든 상황 속에서 가족을 단합시키려는 한실택의 시도는 헛된 것이다. 그러나, 류드밀라 올리츠키야의 소설에서 사건의 다른 발단이 있다. 정책 변화의 결과로, 소설은 1996년에 출시되었으며, 소련의 붕괴 이후 극단한 무질서가 한창이던 90년대에, 작가는 사람들에게 기원, 가족, 집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메데이아 멘데스는 대가족을 위한 단합의 연결고리, 그리고 한실택이 되길 원했던 가족의 기둥이다. <<메데이아와 그녀의 아이들>>이란 소설 제목은 남편의 배신을 견디지 못하고, 보복으로 그들의 친자식들을 죽이게 되는 메데이아 여왕에 대한 고대 신화 전설로 우리를 보낸다. 그러나 러시아 여류작가는 고대 전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그녀의 해석에서 메데이아의 모습은 파괴적이라기 보다는 단결시키는 긍정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그녀는 메데이아에게 불임이라는 신체적 불가능성과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강조하면서, 메데이아에게 불임의 캐릭터를 부여한다. 이러한 신화의 재해석은 바로 긍정적 모습과 평화가 필요한 현대 사회의 맥락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두 소설을 비교해보면, 상징적 이성 상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방법은 두 작가들에게 모두 존재한다. 문제는 연옥과 한돌의 용납할 수 없는 관계이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결과로 연옥은 이성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은 운명은 메데이아 멘테스의 조카 마샤에게 닥치게 된다. 유부녀인 그녀는 부토노브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신경쇠약으로 점점 건강이 악화되며,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작가들의 두 경우에서 전통적 틀에 따라 작용한다 : 육체는 정신에 비해 원초적이다.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여주인공들의 이성 상실은 내면과 자신의 행적으로써 평화로움 속에 머물 수 없음을 보여주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기회를 준다. 또한, 모든 세계의 비난으로부터 정화와 보호의 형식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여성의 도덕적 타락은 항상 그리고 모든 문화권에서 비난을 받아왔다.

연옥과 한돌의 관계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비극적으로 구성된 박경리의 소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에 의하면, 결혼 전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한 연옥에 대한 별로써 그녀의 남편은 성적 불구자로 나타난다. 그는 한돌과 함께 있는 연옥을 찾아내고, 정인을 죽인다. 딸을 옹호하려 애쓰던 한실택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결국 김약국 대가족의 하나의 고리는 붕괴되고, 파괴된다.

반대로, 올리치카야의 소설에서 마샤의 죽음은 두 자매의 결합을 가져온다. 그들은 알렉산드라의 배신으로 인해 25년 간 보지않았다. (메데이아의 남편은 알렉산드라와 함께 그녀를 배신했고, 메데이아는 그가 죽은 후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거대한 슬픔인 마샤의 죽음은 알렉산드라 게오르기예브나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도 가져왔다. 그녀는 여동생 옆에 앉았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메데이아 역시 그녀의 원편에 앉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25년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어떠한 원인도 설명도 없었다.>>

#### 4. 박경리와 류드밀라 올리츠키카야의 작품들에서 집의 원형

집의 형상은 가족의 모습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붕괴되거나 낡아빠진 집의 형상은 가족의 문제와 관계의 위기를 적절하게 상징화한다. 김약국 가문의 경우, 우리는 소설의 서두에서 그를 위협하는 숙명을 보게 된다. 우리는 김씨의 두 형제 - 형 봉제와 동생 봉룡을

만난다. 봉연은 부모님이 그를 위해 특별히 지어주신 멋진 집이 있다. <<…그 집은 부모 생존시부터 봉룡의 몫으로 신축한 것으로 형네 집보다 산뜻하고 운치있는 집이었다>> 그러나, 작가의 생각대로 머지않아 이 집에 불행이 찾아온다. 이와 같은 운명의 비극적인 흐름은 외적 상황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것이다. 성미가 급하고, 무자비한 봉연은 아내를 폭행하고, 숲에서 그녀의 옛 연인을 죽인다. 결국 아내는 비상을 마시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소설에서 숲의 모습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자. 신화 이야기에서의 숲은 죽음의 상징이며, 사망의 전조로 나타난다.

용의 말에 따르면, 숲과 숲의 공포는 <<무의식의 위험한 측면을 상징화한다>>. 작가는 소설에서 숲의 모습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루고 있으며, 숲에서의 젊은 여자와 갓난아이의 죽음에 대한 옛날 노래를 인용한다. 이는 실제로 모든 주인공들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멸망과 죽음의 길에 놓여있는 비타협적인 이야기의 전개를 보여준다.

아내가 죽은 후 봉연은 그녀의 형제들의 보금자리에서 자취를 감추고, 영원히 고향을 떠났으며 어딘가 타지에서 굶주림으로 죽게 된다.

방치된 집에 대한 묘사는 소설에서 조명하는 극적 사건을 예고하며, 미래에 그 집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 예언한다.

<<마을 사람들은 봉룡의 집을 도깨비집이라 부른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면 비상을 먹고죽은 숙정과 숲 속에서 봉룡의 칼에 맞아 죽은 나그네의 혼령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해가 미쳐 뜨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집 앞의 길을 피한다. 봉룡의 집은 완전히 폐가가 되어버렸다. 잡풀이 우거진 뜰은 쭉대밭이 되었고, 담은 허물어져 뱀과 두꺼비가 드나들 뿐이다. 지난 날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집은 마을과 외떨어져 있었고, 문전에 백년을 묵은 느티나무가 있는데다, 솔바람 소리가 그치지 않는 안뒤산의 짙은 숲이 있다. 으시시 떨리는 곳이다. 구름이라도 끼는 날이면 더욱 그렇다…>>

16년이 지난 후 봉연의 아들 김성수는 오래된 고향 집에 오게 된다. 그는 집에서 대가족을 얻어 새롭게 살 기를 꿈꾼다. 이 때 나라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집은 붕괴와 평민의 불안정한 상태를 상징한다.

20년 후 약사 김성수는 이미 고향의 보금자리에서 살고 있다.

개인적인 삶에서 고아로 자란 성수는 매우 고독했고, 그는 사촌 여동생인 아픈 연순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녀가 죽은 뒤,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고, 아내와 공감대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하고 남처럼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에는 불만을 느낀다…>>) 장녀를 싫어하고, 혼자 자신의 방에서 은둔하며, 기생을 만나러 다녔다. 그는 집 대문 근처에 서있는 억센 느티나무로 표현되며, 모든 가족들을 돌보고 있음에도 매우 외로워한다. 그의 딸

용빈 역시 고독한 나무와 그를 비교한다: <<고고한 파초의 모습은 김약국의 모습과 같았고, 굳은 등 밑에 움츠리고 들어간 풍뎡이는 김약국의 마음 같았다...>>

모든 집사람들은 불행했고, 가정은 하나되지 못했으며, 그들은 분리되었다. 풍습에 따라 아내는 남편과 겸상하지 않으며, 김약국은 늘 혼자 방에 앉아있다. 용빈은 공부하러 서울로 떠났고, 용란은 남자를 만나러 집을 떠났다. 장녀는 결혼을 하면서 집을 떠났지만, 과부가 되어 혼자 살게 된다. 어머니 한실택은 딸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행했다. 우리는 작가가 온 나라에 어수선한 마음을 강조한 것을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나라에는 미래의 조국에 대한 혼돈과 근심이 가득하다. 3장의 <<나라없는 백성>>에서 작가는 주인공에게 묻는다. <<세상이 이리 분분해서 마음놓고 살겠나? 나무도 절이 세면 부러진다는데, 왜놈들도 평생을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 나라에 평화와 안정이 없으면, 집에 평화와 행복이 없다 - 박경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반대로, <<메테이아와 그녀의 아이들>> 소설에서 작가는 20세기 말 도덕의 상실과 불안정의 세계에서 가족의 삶을 소생시키는 힘을 강조한다. 여주인공 메테이아 역시 김약국과 비슷하다. 그녀는 의사이자 약초 수집가이다. 또한 그녀 역시 자신의 고향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 <<그녀는 발바닥으로 고향의 호의를 느꼈고 어떠한 다른 지역과도 이 오래된 땅과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단지 2번, 총 6주동안만 크림을 떠났었다.>>

하지만, 많은 자녀를 가진 김약국은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는 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메테이아는 자기 주변에 많은 가족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에 궤변이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자식이 없는 메테이아는 크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많은 조카들과 그 자식들을 불러 모았으며, 그들을 위해 조용하고 비과학적인 관찰을 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매우 사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가 없는 여자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느꼈다>>

박경리는 우리에게 김약국 인생의 최후를 보여준다. - 그는 불치병 환자이고, 몰락한 불행한 사람이다. 하지만 비극적 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보게 된다. - 그는 혼자가 아니고, 그의 딸 용빈이 그를 돌보며 임박한 죽음에 슬퍼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 가신후 그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정리라 해야 묵은 집 한 채와, 살림 부스러기뿐이다 >>. 오래된 집의 형상은 희망의 파괴, 가족의 붕괴, 이전 세대와의 관계 상실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박경리는 혁신적 사상을 가진 새로운 인물 강극을 소설에 등장시키면서, 모두에게 나라의 변화된 환경에서 더욱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준다.

울리치카야의 소설에서 우리는 메테이아가 죽고 난 몇 년 후의 메테이아의 집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모든 친지들이 왕래한다.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 젊은이들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70년대의 그녀의 어린 친지들이었다.>>

메데이아의 집은 인생의 문제, 불행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그녀의 집은 정신과 육체가 휴식을 취하러 가는 피난처, 안식처이다. 소설 <메데이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비극적 사건들을 풍부히 제공하는 한국 작가의 소설과 유사하다. 하지만 울리츠키야는 세대 간 관계, 가족의 결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 구원을 보고 있다.

#### <참고자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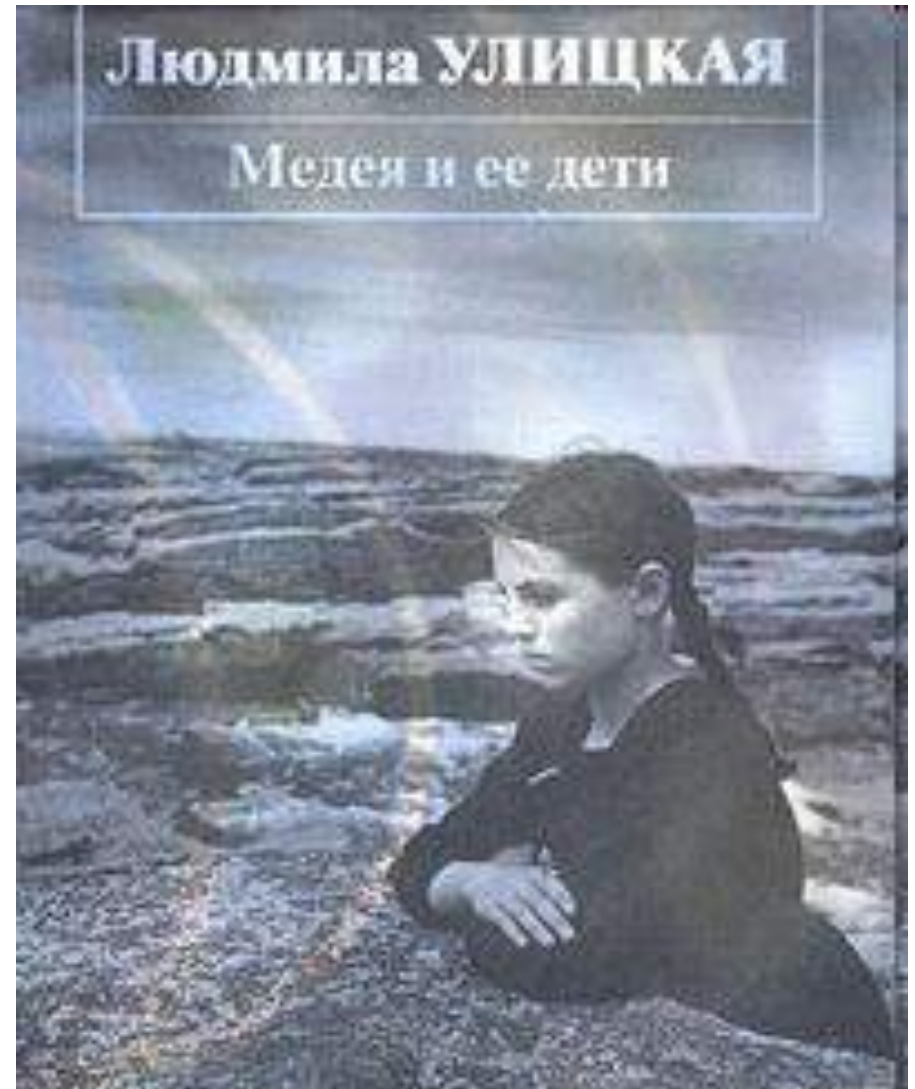
1. Bolshakova A. Literature archetype. // Literature studies. 2001. №6;
2. Leibin W.. Archetype.. //Modern philosophy.-M.:Polittizdat, 1991 – P.28;
3. Markov W. Literature and mythos: Problem of archetype. – Riga, 1990- P. 133;
4. Meletinsky E. About literature archetypes. – M., 1994;
5. Park Genny. The Doughters of pharmaceutist Kim. – M., 2011. -238 p;
6. Ulitzkaja. Medea and her children. – M., 1997, 344 p.;
7. Jung K. Archetype and symbol. – M., 1991. 298 p.;
8. Eliade E..- M., 1987. – P. 335-336.





박경리 작품에서의 집의  
원형<김약국의 딸들> 그리고  
류드밀라 울리프카의 <메데이아와  
그녀의아이들>

고류노바 율리아, 대학원생  
중앙대학교



# 문학 원형

용어는 그의 일반화 된 젊은, 도입 원형 철학자 융에서 유래 되었다. 그의 의미는 프로토 타입, 초기 이미지, 아이디어. 원형 <집단 무의식>의 깊이에 있고, 원형은 타고 난 정신 구조와 보편적인 상징의 기초를 형성 한다. 또는 영원한, 형성한 인류의 감정과 생각. 철학자 융이 말한 가장 중요한 원형이다. - 어머니, 아이, 노인 및 몇몇 다른 사람.

용어는 20세기 사용에서 <원형>은 언어 및 문학 연구의 확산을 포함하여 상당히 확대되었다. 원형은 언어학과 문학에 재연구 되었다.

신화와 문학 사이 관련 되어있다. 문학 평론가 블라디미르 마르코프는 원형의 세가지 필수성에 대해 말했다. 첫 번째는 일반성이다. 두 번째는 만능성, 그리고 반복성이다.

연구가 발샤꼬바의 기사에서 원형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썼다:

-<시간을 초월한 이미지>(햄릿, 돈후안, 돈키호테);

-영웅의 종류 <어머니, 아이, 등);

-이미지 - 상징들, 종종 자연의 것 (꽃들, 바다).

현대 문학 작품에서 처음에 저작권의 발상에서 시작한다. 문학 원형은 종종 작품에서 나타내어진다. 문학 원형은 작가의 사상으로부터 나온다. 원형의 예로는 <집>, <도로> 그리고 <아이>. 이 보기는 문학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다.



# 집의 원형



20 그리고 21세기에서 집의 원형 이해는 특히 중요하다. 인간은 크게 그들의 고국의 생활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 박경리의 소설에서의 일제 감정기 >. 반응순응 시대와 구 소련의 붕괴, 일련의 사회적 폭발, 전쟁, 혁명, 경제혼란, 생활의 각계 각층의 기술화는 도덕성의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했다. 사람들은 강한 존재의 토대를 찾고- 그리고 만약 타락하지 않을 경우 대자연에서 실제생활의 아이디어와 가족과 집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들의 <<공간>>과 친숙한 세계의 손실은 국가의 분리, 토지와 주택의 강탈로 이어진다. 집은 지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영혼의 응답은 진지하게 안락하고 평온한 장소 또는 반환을 찾는 욕망이다

# 소설 <김약국의 딸들> 그리고 <메데이아와 그녀의 아이들>에서의 문학 원형 이미지



박경리의 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작품의 깊은 상징과 이미지를 주목해야 한다. 소설의 장면, 강창골과 통영은 모두 물과 바다 사방에 둘러 싸여있는 반도에 위치해있다. 바다, 물은 원형 이미지이다. 탄생의 상징, 새로운 삶의 열정, 새로운 인생의 시작 뿐 만 아니라, 시간의 상실, 건망증, 죽음, 죽음의 통로의 상징이다.

윤의 작품들에서는 물은 종종 의식의 상징으로 나타내어집니다.

<<통영(지금은)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출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그러니 만큼 바다빛은 맑고 푸르다.>>

우리는 또한 바다의 상징을 류드밀라 울리츠카야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그녀의 여주인공 메데이아 멘데스는 페오도씨야의 해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대가족이 오는 그녀의 집은 시골에 있다.<<두 개의 산맥, 오히려 갑자기 하강 내선의 전망과 마을에 바다와 고대 요새의 유적 먼 플랩 구별 만 급성 장의 산 그리고 맑은 날씨에.... 볼 수 있는 마을.. 조카들 중 한 명이 말한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 사실상 세계관에서 최고의 전망은 <메데이아의 화장실에서 열립니다.> 이 문맥에서 화장실의 언급은 깨끗한 원상태의 것과 바다의 자연적인 요소, 자연과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메데이아>의 바다는 - 휴식의 장소 (옛 소련 시민을 위한 크림은 모든 연합 건강 휴양소, 요양지로 나타내어 진다. 안락한 인생, 따뜻한 태양, 몸과 영혼의 회복의 조용한 흐름의 상징이다. 조카와 메데이아의 친척은 여기로 지향한다. 하지만, 박경리 소설에서 바다는 생계로. 또한 고문으로 그리고 종종 살인자로 나타내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연 어업에, 혹은 어업과 관련된 사업에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바다가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씨앗 생산자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빈곤, 기아,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영적인 관계의 손실의 결과로 나타내어진다.

바다 이미지의 이러한 잔인한 예감은 불운 때문이다. 이 불운은 전체 소설 <김약국의 딸들> 약사 김씨의 가족들을 위압한다. 이것은 한국에서 슬픈 사건으로 충돌 및 사람들 및 20대 초 세기에 있는 일본점령의 영향과 학대와 투쟁의 년과 관련 있다. 사실 한 가족을 예를 들어, 저자는 시련 동안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운명을 보여준다. 저자는 약사 김씨의 딸들에게 다른 특성들을 주면서, (용숙(24)-근면적인, 하지만 욕심이 많은, 용빈(21)-목적달성을 하는, 지혜로운, 용란(19)-아름다운, 하지만 무지한, 용옥(17)-착한, 믿음성 있는, 용해(12)-아버지가 좋아하는) 저자는 독자들에게 어려운 사회 및 정치적인 상황의 영향을 받고 개인의 개발의 방법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작품에 큰 가치는 어머니의 원형 이미지.

어머니의 원형은 많은 발현을 가진다. 이것은 아마도 어머니, 할머니 또는 어머니의 의미로 비유적인 의미로는 신일 수 있다. 용에 말에 의하면 어머니의 상징 뿐만 아니라, 이것들에 “구원에 대한 욕망을 표현: 천국, 하나님의 나라.”(용빈과 용옥은 기독교인이다) 상실의 것들: 교회, 대학, 국가, 하늘, 땅, 숲, 바다와 달. 풍요와 다산은 어머니의 상을 의미한다. (예제로는 한실댁은 딸 결혼식을 위한 지참을 수집한다.)

보통의 엄마는 박경리의 소설에서-한실댁, 약사 김씨의 아내이다. 그녀는 각 딸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그녀의 시도는 무의미해지고 불행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또 다시 악의 세력의 지배로 인한 불운으로 전체 한국인으로서는 가족 때문이다.

어떤 즐거운 사건은 폐허, 나쁜 소식, 또는 희망의 축소된 그림으로 끝납니다. 더하여, 그는 거의 항상 앞 나쁜 징조의 긍정적인 발전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의 강한 상징으로 나타낸다. 소설의 전체는 우울한 신비주의로 가득 차 있다. 결혼식 전에 아픈 어머니 용숙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결혼식에 입을 한복이 잘못 오려진다, 결혼식 장면은 적의 배가 오는 것으로 끝난다.<<그러니까 1910년 8월 29일에 치욕적인 한일 합병 조약이 발표되었다.>>,영화의 결혼식 날에 <<“이거 모래 벼락이다! 물벼락은 맞아도 모래벼락은 처음인데?”>>(<<이런 날 시집가는 가씨나 풍파대기 많겠다.>>),희생하는 동안 물로 배가 항해하기 전에 샌다이를 훔쳐, 결과로 한 배가 침몰하고, 선원들이 죽고, 가족들은 유모 없이 굶주리고 있다.



그 당시, 딸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나라의 힘든 상황 속에서 가족을 단합시키려는 한실댁의 시도는 헛된 것이다. 그러나, 류드밀라 울리츠키의 소설에서 사건의 다른 발단이 있다. 정책 변화의 결과로, 소설은 1996년에 출시되었으며, 소련의 붕괴 이후 극단한 무질서가 한창이던 90년대에, 작가들은 사람들에게 기원, 가족, 집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메데이아 멘데스는 대가족을 위한 단합의 연결고리, 그리고 한실댁이 되길 원했던 가족의 기둥이다. <<메데이아와 그녀의 아이들>>이란 소설 제목은 남편의 배신을 견디지 못하고, 보복으로 그들의 친자식들을 죽이게 되는 메데이아 여왕에 대한 고대 신화 전설로 우리를 보낸다. 그러나 러시아 여류작가는 고대 전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그녀의 해석에서 메데이아의 모습은 파괴적이라기 보다는 단결시키는 긍정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그녀는 메데이아에게 불임이라는 신체적 불가능성과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강조하면서, 메데이아에게 불임의 캐릭터를 부여한다. 이러한 신화의 재해석은 바로 긍정적 모습과 평화가 필요한 현대 사회의 맥락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두 소설을 비교해보면, 상징적 이성 상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방법은 두 작가들에게 모두 존재한다. 문제는 연옥과 한돌의 용납할 수 없는 관계이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결과로 연옥은 이성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은 운명은 메데이아 멘데스의 조카 마샤에게 닥치게 된다. 유부녀인 그녀는 부토노브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신경쇠약으로 점점 건강이 악화되며,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작가들의 두 경우에서 전통적 틀에 따라 작용한다: 육체는 정신에 비해 원초적이다.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여주인공들의 이성 상실은 내면과 자신의 행적으로써 평화로움 속에 머물 수 없음을 보여주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기회를 준다. 또한, 모든 세계의 비난으로부터 정화와 보호의 형식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여성의 도덕적 타락은 항상 그리고 모든 문화권에서 비난을 받아왔다.

연옥과 한돌의 관계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비극적으로 구성된 박경리의 소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에 의하면, 결혼 전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한 연옥에 대한 벌로써 그녀의 남편은 성적 불구자로 나타난다. 그는 한돌과 함께 있는 연옥을 찾아내고, 정인을 죽인다. 딸을 옹호하려 애쓰던 한실댁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결국 김약국 대가족의 하나의 고리는 붕괴되고, 파괴된다.

반대로, 울리치카야의 소설에서 마샤의 죽음은 두 자매의 결합을 가져온다. 그들은 알렉산드라의 배신으로 인해 25년 간 보지않았다. (메데이아의 남편은 알렉산드라와 함께 그녀를 배신했고, 메데이아는 그가 죽은 후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거대한 슬픔인 마샤의 죽음은 알렉산드라 게오르기예브나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도 가져왔다. 그녀는 여동생 옆에 앉았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메데이아 역시 그녀의 왼편에 앉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25년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어떠한 원인도 설명도 없었다.>>

## 4. 박경리와 류드밀라 울리츠카야의 작품들에서 집의 원형

집의 형상은 가족의 모습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붕괴되거나 낡아빠진 집의 형상은 가족의 문제와 관계의 위기를 적절하게 상징화한다. 김약국 가문의 경우, 우리는 소설의 서두에서 그를 위협하는 숙명을 보게 된다. 우리는 김씨의 두 형제 - 형 봉제와 동생 봉룡을 만난다. 봉연은 부모님이 그를 위해 특별히 지어주신 멋진 집이 있다. <<...그 집은 부모 생존시부터 봉룡의 몫으로 신축한 것으로 형네 집보다 산뜻하고 운치있는 집이었다>> 그러나, 작가의 생각대로 머지않아 이 집에 불행이 찾아온다. 이와 같은 운명의 비극적인 흐름은 외적 상황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것이다. 성미가 급하고, 무자비한 봉연은 아내를 폭행하고, 숲에서 그녀의 옛 연인을 죽인다. 결국 아내는 비상을 마시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소설에서 숲의 모습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자. 신화 이야기에서의 숲은 죽음의 상징이며, 사망의 전조로 나타난다.

웅의 말에 따르면, 숲과 숲의 공포는 <<무의식의 위험한 측면을 상징화한다>>. 작가는 소설에서 숲의 모습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루고 있으며, 숲에서의 젊은 여자와 갓난아이의 죽음에 대한 옛날 노래를 인용한다. 이는 실제로 모든 주인공들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멸망과 죽음의 길에 놓여있는 비타협적인 이야기의 전개를 보여준다.

아내가 죽은 후 봉연은 그녀의 형제들의 보금자리에서 자취를 감추고, 영원히 고향을 떠났으며 어딘가 타지에서 굶주림으로 죽게 된다.

방치된 집에 대한 묘사는 소설에서 조명하는 극적 사건을 예고하며, 미래에 그 집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 예언한다.

<<마을 사람들은 봉룡의 집을 도깨비집이라 부른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면 비상을 먹고죽은 숙정과 숲 속에서 봉룡의 칼에 맞아 죽은 나그네의 혼령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해가 미쳐 뜨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집 앞의 길을 피한다. 봉룡의 집은 완전히 폐가가 되어버렸다. 잡풀이 우거진 뜰은 썩대밭이 되었고, 담은 허물어져 뱀과 두꺼비가 드나들 뿐이다. 지난 날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집은 마을과 외떨어져 있었고, 문전에 백년을 묵은 느티나무가 있는데다, 솔바람 소리가 그치지 않는 안뒤산의 짙은 숲이 있다. 으스스 떨리는 곳이다. 구름이라도 끼는 날이면 더욱 그렇다...>>

16년이 지난 후 봉연의 아들 김성수는 오래된 고향 집에 오게 된다. 그는 집에서 대가족을 얻어 새롭게 살 기를 꿈꾼다. 이 때 나라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집 붕괴와 평민의 불안정한 상태를 상징한다.

20년 후 약사 김성수는 이미 고향의 보금자리에서 살고 있다.



개인적인 삶에서 고아로 자란 성수는 매우 고독했고, 그는 사촌 여동생인 아픈 연순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녀가 죽은 뒤,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고, 아내와 공감대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하고 남처럼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에는 불만을 느낀다...>>) 장녀를 싫어하고, 혼자 자신의 방에서 은둔하며, 기생을 만나러 다녔다. 그는 집 대문 근처에 서있는 억센 느티나무로 표현되며, 모든 가족들을 돌보고 있음에도 매우 외로워한다. 그의 딸 용빈 역시 고독한 나무와 그를 비교한다: <<고고한 파초의 모습은 김약국의 모습과 같았고, 굳은 등 밑에 움츠리고 들어간 풍뎡이는 김약국의 마음 같았다...>>

모든 집사람들은 불행했고, 가정은 하나되지 못했으며, 그들은 분리되었다. 풍습에 따라 아내는 남편과 견상하지 않으며, 김약국은 늘 혼자 방에 앉아있다. 용빈은 공부하러 서울로 떠났고, 용란은 남자를 만나러 집을 떠났다. 장녀는 결혼을 하면서 집을 떠났지만, 과부가 되어 혼자 살게 된다. 어머니 한실댁은 딸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행했다. 우리는 작가가 온 나라에 어수선한 마음을 강조한 것을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나라에는 미래의 조국에 대한 혼돈과 근심이 가득하다. 3장의 <<나라없는 백성>>에서 작가는 주인공에게 묻는다. <<세상이 이리 분분해서 마음놓고 살것나? 나무도 절이 세면 부러진다는데, 왜놈들도 평생을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

나라에 평화와 안정이 없으면, 집에 평화와 행복이 없다- 박경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반대로, <<메데이아와 그녀의 아이들>> 소설에서 작가는 20세기 말 도덕의 상실과 불안정의 세계에서 가족의 삶을 소생시키는 힘을 강조한다. 여주인공 메데이아 역시 김약국과 비슷하다. 그녀는 의사이자 약초 수집가이다. 또한 그녀 역시 자신의 고향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 <<그녀는 발바닥으로 고향의 호의를 느꼈고 어떠한 다른 지역과도 이 오래된 땅과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단지 2번, 총 6주동안만 크림을 떠났었다.>>

하지만, 많은 자녀를 가진 김약국은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는 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메데이아는 자기 주변에 많은 가족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에 궤변이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자식이 없는 메데이아는 크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많은 조카들과 그 자식들을 불러 모았으며, 그들을 위해 조용하고 비과학적인 관찰을 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매우 사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가 없는 여자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느꼈다>>

박경리는 우리에게 김약국 인생의 최후를 보여준다. - 그는 불치병 환자이고, 몰락한 불행한 사람이다. 하지만 비극적 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보게 된다. - 그는 혼자가 아니고, 그의 딸 용빈이 그를 돌보며 임박한 죽음에 슬퍼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 가신후 그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정리라 해야 묵은 집 한 채와, 살림 부스러기뿐이다 >>. 오래된 집의 형상은 희망의 파괴, 가족의 붕괴, 이전 세대와의 관계 상실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박경리는 혁신적 사상을 가진 새로운 인물 강극을 소설에 등장시키면서, 모두에게 나라의 변화된 환경에서 더욱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준다.

울리츠키카야의 소설에서 우리는 메데이아가 죽고 난 몇 년 후의 메데이아의 집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모든 친지들이 왕래한다.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 젊은이들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70년대의 그녀의 어린 친지들이었다.>>

메데이아의 집은 인생의 문제, 불행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그녀의 집은 정신과 육체가 휴식을 취하러 가는 피난처, 안식처이다. 소설 <메데이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비극적 사건들을 풍부히 제공하는 한국 작가의 소설과 유사하다.

하지만 울리츠키카야는 세대 간 관계, 가족의 결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 구원을 보고 있다.

Crash!

## Увертюра из Российской поп-музыке

윤송이  
(고려대학교)

Сейчас я играю в рок-группе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Я пользовался много видов музыки, играя его себе в рок-группе. Обычно я играл рок-музыку, но я также играл Джаз и так далее. Я наслаждался не только многих корейских поп-музыка, и баллады, а также Speed Metal, от Северной Европы. Потому что я провел так много времени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слушают много музыки, я узнал, необычных жанров и песни. В аспекте стране, я часто слушал ирландская группа, и я когда-то играла Турецкая музыка. Но если подумать, то я понял, что я никогда не слушал его внимательно Российской поп-музыки, которой я учусь.

На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я искал Youtube весь день, чтобы найти музыку с русскими текстами для изуч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онечно, профессор часто представил какую-то русскую музыку во время лекции. Но она была слишком Стара, или это был романс, так что мне не нравится. У меня не было особого желания учиться музыке, которую я не люблю. Итак, я начал искать е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Что это, как я обнаружил, ЕЛЛО, канал на Youtube для Российской поп-музыке. Как это, я взял мой первый шаг на пути к культуре Российской поп-музыке.

Однако, это было не легко найти музыку, которая мне нравится даже в ЕЛЛО, где есть много песен, которые пользую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России. Я был по-настоящему озадачен. Я наслаждался почти любую музыку, но теперь я так придирчивы. Я даж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Хэви-Метал без каких-либо проблем. Многие песни, которые я слушал в первый раз, была почти в teuroteu стиле с экстрим-электронного звука. вот так. Я люблю каждый музыкальный жанр, но если есть тот жанр, который мне не нравится, это teuroteu.

Стереотипное ритм 4/4 с незнакомыми электронный звук был слишком неуклюжим для меня. Ритм-это Базовая структура музыки, и он решает общую атмосферу песни. Но я не мог насладиться песни, потому что мне не нравятся

такие важные ритм. Это не то что я не люблю электронные звуки, но я люблю только тех, кто в клубной музыки. Я даже подумал, что он был слишком перегружен для жанра, что голос певца должны быть более четкими. Как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идола музыка, электронная звук компенсирует певцов сравнительно низкой способностью к пению. Но я не мог понять, почему они используют так много электронного звучания даже певцы с красивым голосом.

Может быть, это то, что они называют эмоциональное различие. То, что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несколько неискушенных, как это может бы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местом отдыха для них русские. В конце концов, я решил отпустить Корейского эмоции, вылила мне на ум. Удивительно, но один день я нашла песню, которая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Название песни было впол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ситуации:

「Я хочу」. Я нашел песню, которую я хочу. С волнением, я искал информацию о певице. Ее имя-это Ёлка. Но она была не Российская певица, но в Украине певица. Но ее низким голосом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и было не так много, электронное звучание в песне.

Но как, слушая эту песню, я обнаружил один интересный факт. У меня есть привычка слушать структура песни, потому что мой опыт рок-группы. Эта песня подчеркнул живость с основным ключевым в начале, а во время припева, он показал небольшое стиль мелодии. Как правило, поп-музыки начать с однообразным интро, и излучает энергию во время припева, но эта песня была немного другой.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я была так счастлива, что я наконец-то нашла песню, которая мне нравится, что я даже не желает выяснить, аккорды. Так за свои действительные намерения, я переводил текст песни 「Я хочу」, и учился. Потому что я был не искусны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тем не менее, некоторые слова не имело никакого смысла, но я был вполне доволен, считая, что это была моя первая попытка. Особенно, я был горд собой за то, что я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язык, который я только учусь перед столом.

После перевода текстов, я, естественно, начал петь, потому что я знаю, что это значило. Поющие вместе с сложное произнош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было довольно интересно. Проводя много времени в российский музыкальный канал, я начал узнавать некоторые больше российских певцов. Мне стало интересно, Анита Цо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Елка. Многие люди могут подумать, Виктор Цой,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й певицы в России. Виктор Цой-основной вокал рок-

группы КИНО. Я также подумал Виктор Цой, когда я решил изучать русский язык с музыкой. Но я не мог соотнести себя песни, вероятно, потому, что они были слишком старыми. Не только это, я не смог бы спеть песню рок-группа с мужским вокалом. Мне нужна была песня, которую я мог бы петь, мое намерение было изучение языка.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Анита Цой-Корейская певица, как и Виктор Цой. Ее бабушка корейский, и она начала свою профессию певца в 1997 году. Хотя она и не новая звезда, у нее своя шоу-программа с именем "Анита-шоу".

Я узнал об Анита Цой песня называется 「Наверно это любовь」. В этой песне были слова песен легче, чем 「Я хочу」, и общая атмосфера была уютной, так мне это понравилось больше, чем 「Я хочу」. Это было легко подпевать, потому что Анита Цой также был мягким низким голосом. Яркую атмосферу припев повторяется несколько раз, то, естественно, я ее запомнил, и теперь это моя любимая песня, которую я пою.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как этот, я узнал, Елка, и Анита Цой. Я нашел музыку, которая мне нравится, и практикуется, чтобы подпевать, хотя это было нелегко. Но чего-то не хватает. Во-первых, Елка-э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не русский певец, и Анита Цой дебютировал давно. Мне нужен свежий российский певец, который может заставить меня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актуальности и в наши дни Российской поп-музыки. Там были некоторые певцы с удобными тона, такие как Алсу, Махим, но я не мог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바로 이거야!'. Конечно, не все их песни были не интересны. Особенно, ясные и блестящие голос Махим было так волшебным. И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я слушал 「Ветром стать」, я хотел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у песню, как мой утренний Звонок будильника, потому что с ее голос, чувствовал, что эта песня свежей утренней росы.

Но сейчас я хотел певец со взрывчаткой мощный голос. Когда я слушаю музыку, я слушаю два вида песен: мягкий песни, которые я могу петь, и удачные песни, которые я не могу даже попробовать спеть вместе. Я хотел певица не с голосом, с низким тоном или фальцет, а певец, который имеет богатую мощный голос, и выдающейся способностью петь. Также певица музыкальный вкус должен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моим аппетитом. Но если певец имеет приличный голос, ее песни были в стиле " ретро " с миноре. И если сама песня приличная, чрезмерное электронный звук прервал голос певца моментально.

Но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все, что вы хотите, если вы искренне желаю. Благодаря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Елло, я наконец-то нашла "музыкант", что я так хотела ... Ее зовут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Первая песня, которую я услышал, как она поет был «Навек» . Но я не могу описать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я впервые услышал эту песню. Интро было не более 15 секунд. Момент уставленный удобн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аккордов(я обнаружил, что база аккордов пошел 1-6-3-4,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типичным тип стабильных прогрессии). В момент, когда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пел в первой слова “моя любовь больше..”. Я почувствовал сильный, но мягкая власть в ее голосе, и, как всегд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электронные звуки стали наполнять музыку, но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хвастался ее мощный голос, как будто она боролась против такого звука.

Но одна песня не хватало. Я сделал, как упомянутый «Наверно это любовь» , Анита Цой, но другие ее песни не были достаточно интересными для меня. Мне необходимо больше знать о ней, поэтому я посетил своего официального веб-сайта(<http://gagarina.com/>). Вы можете прослушать все ее альбомы на этом веб-сайте. «Навек» - ее альбом, выпущенный в этом году, в 2013 году. С некоторым волнением. и некоторые опасения, разочарования в то же время, я стал слушать песни были выпущены в 2012 году, «Нет» . Ее атмосфера была подобна «Навек» .И, как я ожидал, и голос ее, достаточно мощных, чтобы одержать победу над электронными звуками. Выслушав еще несколько ее песен, я не смогла убедить себя в том, что если кто-нибудь спросит меня, кто мой любимый певец, я могу ответить на это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без всякого сомнения.

Я хотел бы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чувствами по поводу нескольких ее песен. Есть около 10 песен в «Попроси у облаков» , выпущенный в 2007 году, и потому, что это ее первый альбом, я понял, что она пыталась найти свое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цвет в этот альбом. А первую песню «Я твоя» имеет сравнительно быстрый темп, и мощный хор, вторая песня «Ветер» -баллада с акустической гитарой, и сентиментальной атмосфере. Она поет гораздо следующей песне «Give Up»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и наслаждается страстным Танго-ритм. «Утро» - это вс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и это groovy R&B-баллада, песн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анго. Как это, она ставит перед попробовать много различных стилей музыки в этот первый альбом. Но в 2010 году,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выпущен «О себе», и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она наконец-то стала найти ее стиль. Есть некоторые чувственные такие песни, как «Ой» или «Я Виновата», но я мог бы обнаружить, что особое очарование, что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в «Навек». Особенно, «Таю» было более захватывающую мелодию и звучание, чем «Навек». И последняя песня «Пропади все пропадом» был впечатляющим, потому что он начинал с мягким звуком, но мощный голос взорвалась во время припев. После этого альбома, она выпустила по одной песне на каждом альбоме, и вы могли бы знать, если вы узнаете, почему ее краткая биография, что я расскажу прямо сейчас.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родился в 1987 году, в Москве, столица России. В 2003 году Полина попала на телевизионный проект «Фабрика звезд-2». В 2010 году она закончила учёбу в Школе-студии МХАТ с красным дипломом. В 2011 году участвовала в проекте Первого канала «Призрак оперы». 2012 год был напряженный год для нее. Он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Фабрика звезд. Россия - Украина»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команды, и участвовала в озвучани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анимационного фильма «Монстры на каникулах» для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ката. к тому же, она стала ток-шоу «Вкусно жить» на канале ТНТ. В начале года она участвовала в «Две звезды» Александр Жулин, и заняла 2-е место. Как это, она снялась во многих телевизионных программ, а также следуя своей музыкальной мечты. Может быть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она не выпустила много песен, после альбома «О себе». Она также получила множество призов, таких как «Новая волна» в 2005 году МУЗ-ТВ в 2010 году, а в 2012 году она получила «Золотой граммофон» с «Спектакль окончен».

Я всего лишь пытался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но следуя ее библиографии, я посмотрел в Российской поп-музыки и культуру. «Фабрика звезд», что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снималась в 2003 году, началась в 2002 году, и эта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ивает молодых новых музыкантов. Многие участники выполняет свою музыку, и каждый из них оцениваются и ранжируются. Это звучит как ре-версия популяр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ревнования в Кореи. Честно говоря, я был очень удивлен. Потому что я не думал, что Россия будет делать что-то до Кореи в аспекте популярной культуры. Нет никакой особой причины думать так. Может быть, это потому, что я думал, что русская поп-музыка была немного неискренних за чрезмерные электронный саунд, и неудобно ритмы. В Кореи,

где такие программы, как "Super star " К" и "К-поп-звезда" началась не так давно, критика по поводу чрезмер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и искаженное редактирование-это спорный вопрос. Как русские люди, и российских СМИ приняли такие конкурентные поп-музыка программ? Или на другой аспект, как же таких программ подошел к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от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мы можем думать.

Кроме того, есть еще одна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заставила меня задуматься о корейской поп-музык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Призрак оперы» - это программа, основанная на " Поп-звезда оперной звездой " из Англии. Поп-певцы выполнить оперной музык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оперный певец, и оперный режиссер оценивает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Конечно, Россия-не Родина оперы, но Россия родила многих популярных оперных композиторов, таких как Михаил Глинка, Николай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Петр Чайковский. Россияне могли в полной мере ощутить красоту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переосмыслил в современ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ислушиваясь к опере поют современные певцы. Тогда у меня была идея. Мы также имеем нашу собственную красивую музыку жанра под названием "판소리". Что, если корейской поп-певцы поют свою версию "판소리" музыки?

Кроме того, «Две звезды», которую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выиграл второй приз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был показан с 2006 года. В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двух певцов петь памятный старые песни вместе, и судей, и зрителей оценить певцов, и классифицировать их. В Корее, у нас есть "불후의 명곡", и "나는 가수다" которая близка к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Мы знаем, что в России стали такие программы, немного ра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Кореей, которые начали с 2011 года.

Я только дверь постучался ЕЛЮ, российский поп музыкальный канал, просто так, чтобы сделать изуч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более интересным. Сначала я был разочарован, потому что я ожидал слишком много. Но со временем я смог найти себя, наслаждаясь такой отчетливый звук русской музыки. Также я обнаружил, российский музыкант, который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зучая свою карьеру, я нечаянно узнал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о Российской поп-музыке культуры. Русские насладиться не только классическая музыка, балет, но и электронной танцевальной музыки или музыка программы выживания с трепетом. Как Корея есть много постоянных TV awards для поп-артистов. Во время так, они пытаются сохранить классическую музыку, представляя его к поп-музыки, и это то, что мы

можем узнать о Росси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я хотел бы также упомянуть в Корею поп-музык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влиять на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Идол рынка. Как я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упоминал, многие русские песни, которые я впервые услышал, была полна сильных электронных звуков. Слушая такие песни, я не мог перестать думать об Кореи идола музыка. Что было бы, если бы Россия встречает таких-захватывающая мелодия, и высокий электронных звуков Корейского идола музык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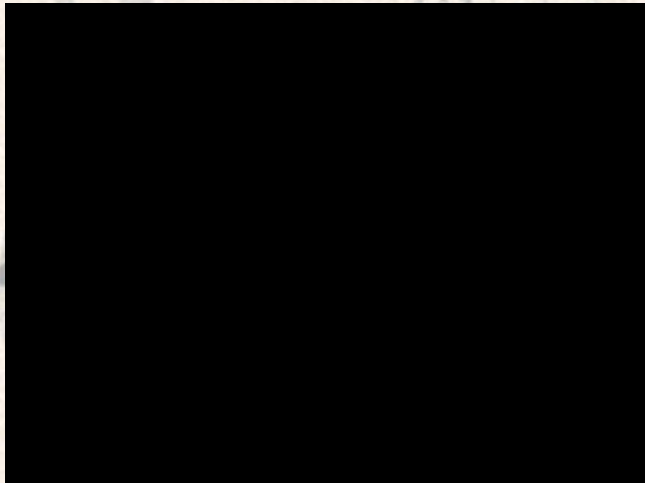
В самом деле, как поиск по Российской поп-музыке культуры, я получил более любопытно. Это правда, что я узнал много интересных фактов, но я н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спытал те. Чем больше я знаю, тем больше мне было любопытно. Я не знаю точный стиль этих программ, потому что я не могу смотреть, как он сам, ни я не знали, как люди России, и СМИ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это. Культура-это не то, что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через компьютере, сидя в комнате. Можно только наслаждаться истинной культуры, общаясь с его языка, и на его месте. я сейчас только в стадии изуч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чтобы найти способ ответить на этот вопрос, отмечает в этом эссе. Надеемся, что однажды я могу стереть все знаки вопроса здесь я заканчиваю свое эсс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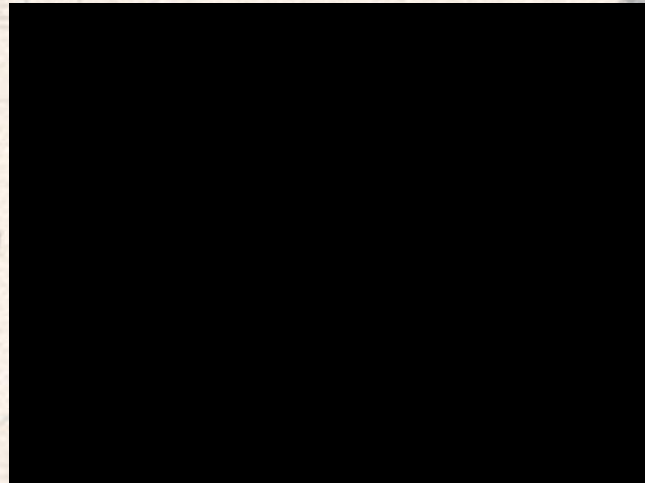
# Увертюра из Российской поп-музыке

## 러시아 팝 음악을 접하다

◉ ЕЛЛО youtube музыкальный канал



▶ Анна Седокова - Ревност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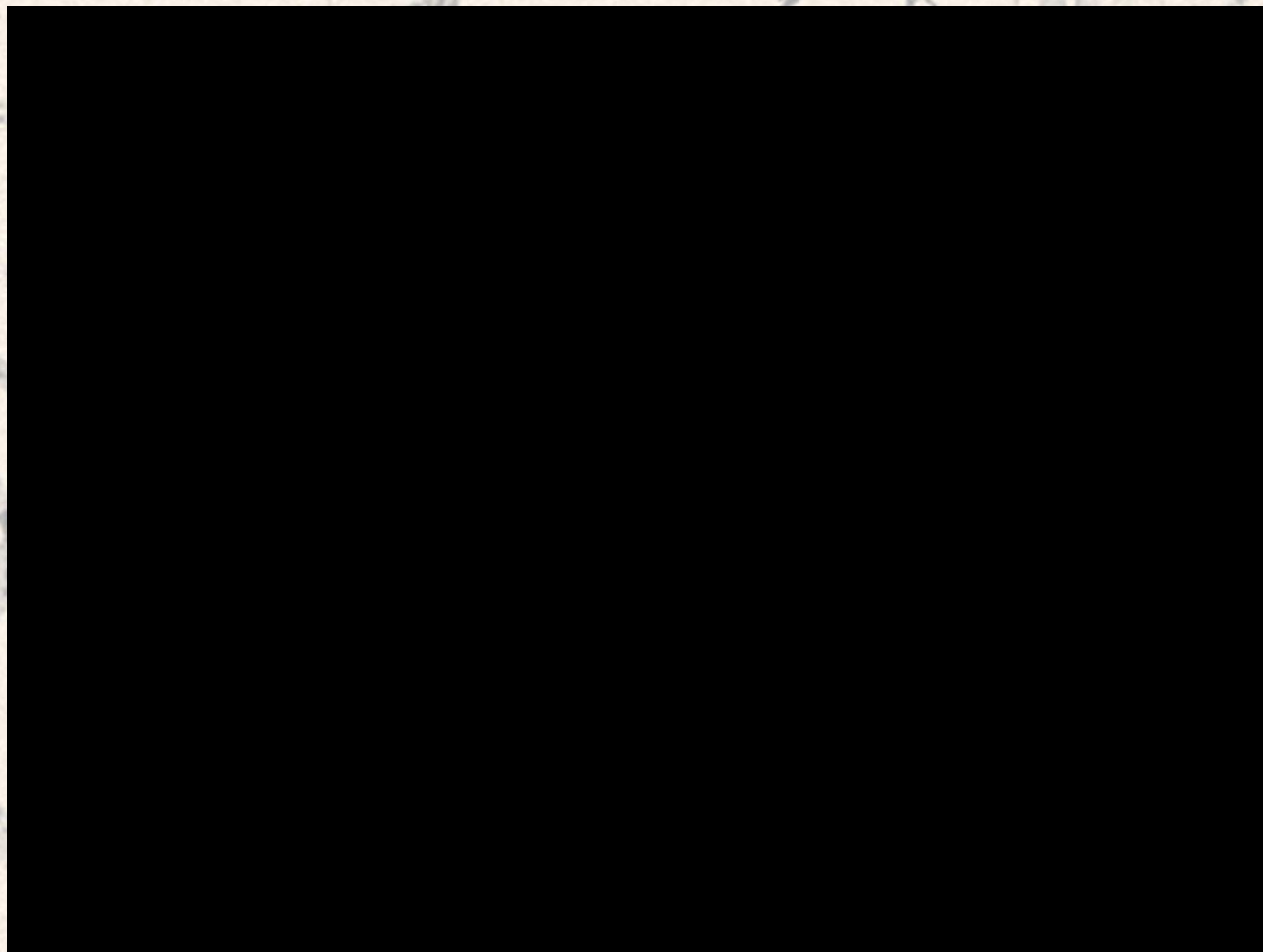


▶ Константин Дерр - ПЛАЧЕТ ЛЮБОВЬ!

ЁЛКА



► ЁЛКА - ХОЧ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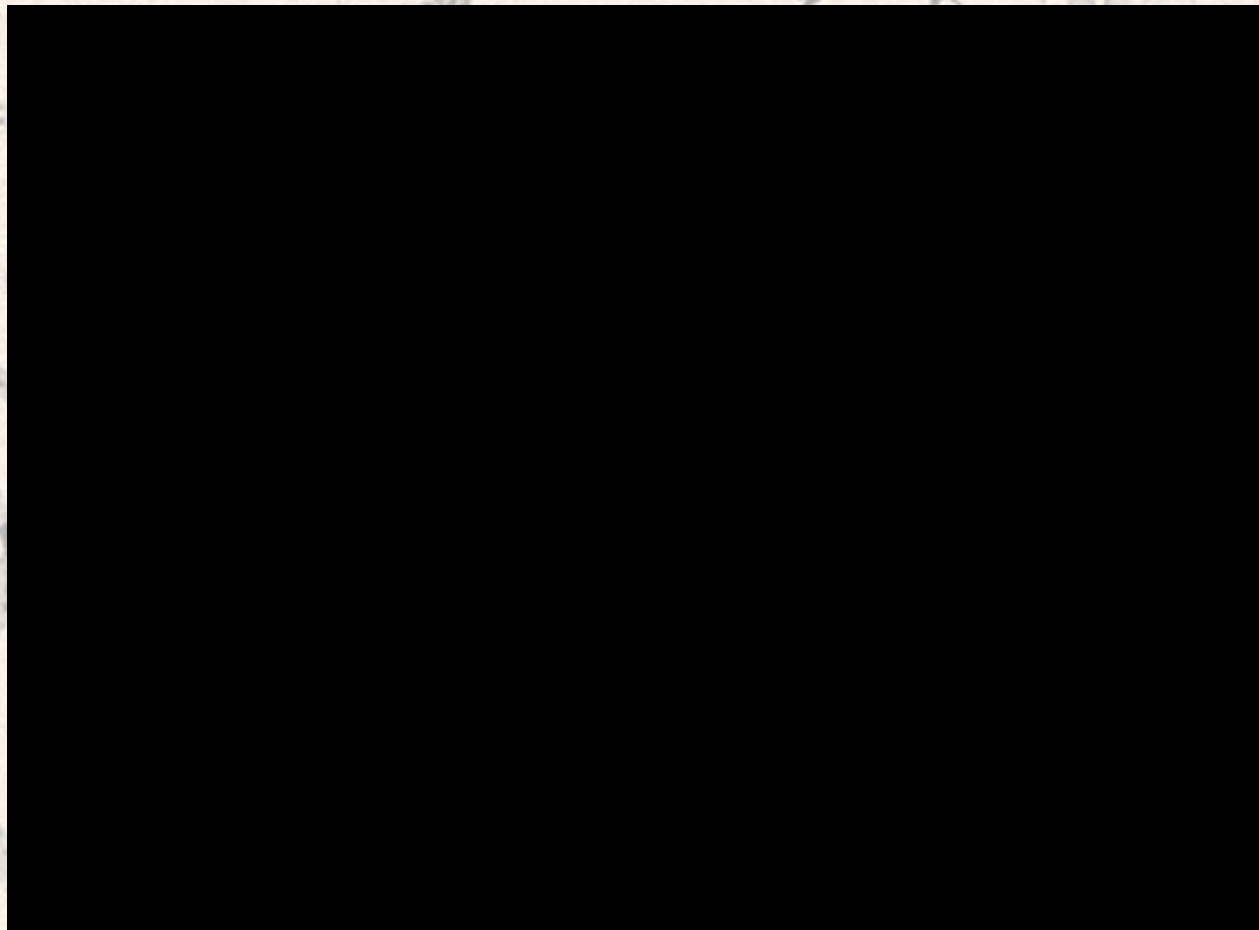


# АНИТА ЦОЙ

- ◉ 1971년 모스크바 태생
- ◉ 고려인 3세
- ◉ 1997년도, 27세에 데뷔



# ▶ АНИТА ЦОЙ - НАВЕРНО, ЭТО ЛЮБОВЬ



# ВИКТОР ЦО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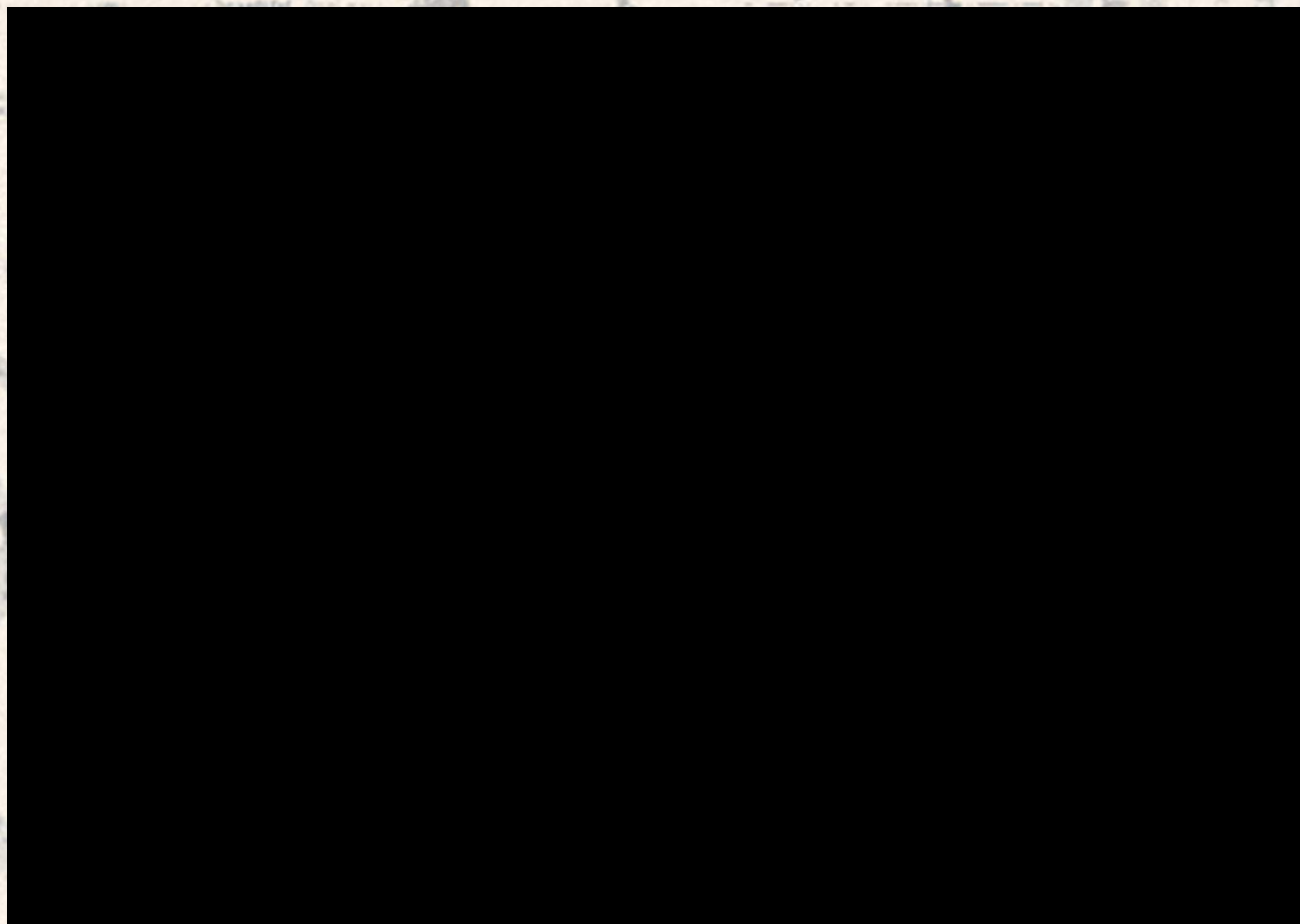
기타,,



#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 ►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 НАВЕК



#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 ◉ Дата рождения: 27.03.1987
- ◉ Место рождения: Москва
- ◉ «Фабрика звезд» сезон 2(2003)
- ◉ закончила учёбу в Школе-студии МХАТ(2010)
- ◉ «Призрак оперы»(2011)
- ◉ «Фабрика звезд Россия-Украина»(2012)
- ◉ «Монстры на каникулах»  
для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ката(2012)
- ◉ ток-шоу «Вкусно жить»
- ◉ «Две звезды»(2013)

# «ФАБРИКА ЗВЕЗД»

- 폴리나가 2003년에 출연(1위)
- 2002년에 시작
-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 진행방식(3~4개월)
  - 방송 전에 수 천명의 지원자들 심사(16~17명)
  - 합숙(몰래 카메라)
  - 기본 레슨(노래, 연기, 안무, 운동 등), 쇼 비즈니스 관련 레슨



# «ПРИЗРАК ОПЕР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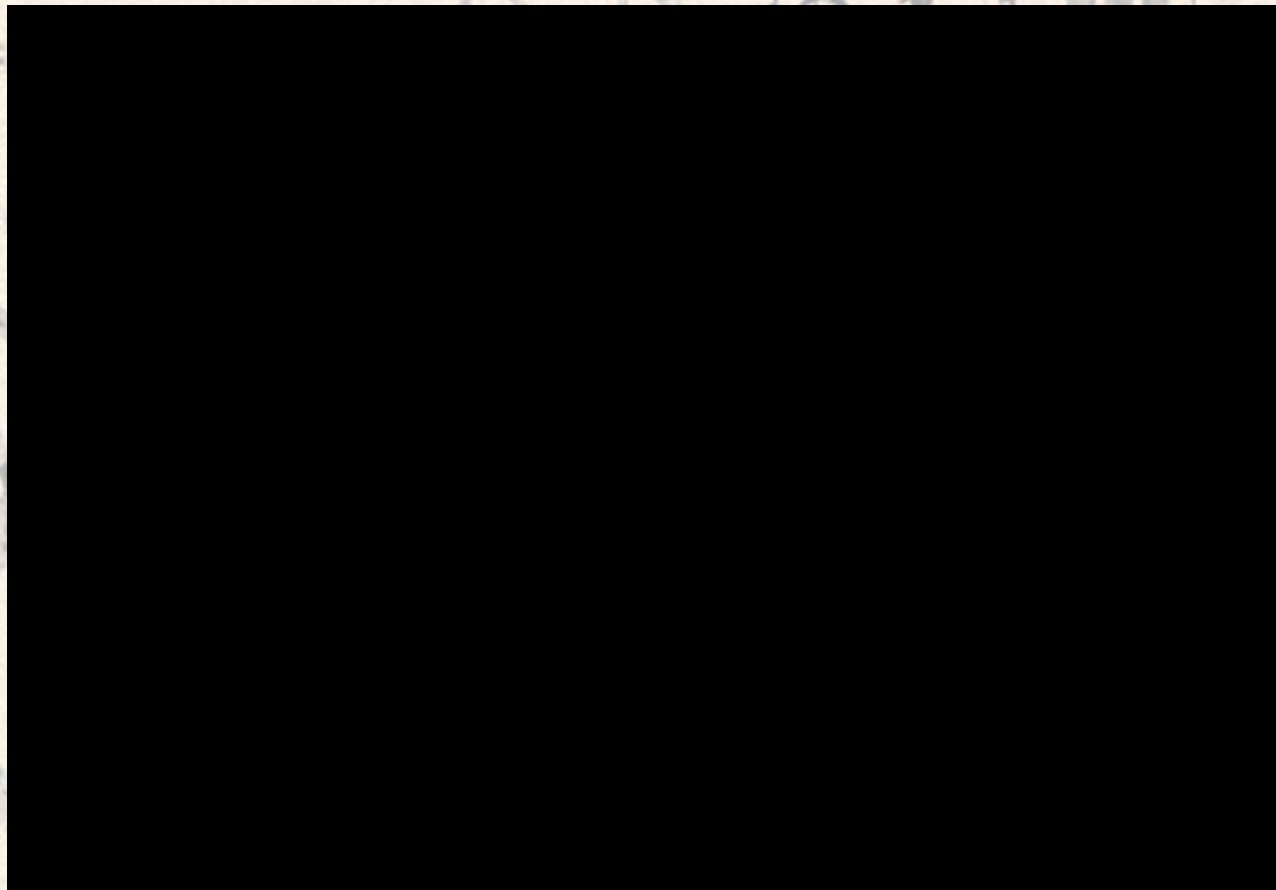
- ◉ 2011년도에 9회 방송
- ◉ 영국의 <Pop star to Opera star>
  - (3 сентября 2011): Мировые оперные арии
  - (10 сентября 2011): Оперы русских композиторов
  - (17 сентября 2011): Оперетта
  - (24 сентября 2011): Мюзиклы
  - (1 октября 2011): Русский романс
  - (8 октября 2011): Итальянская песня
  - (15 октября 2011): Народные песни
  - (22 октября 2011): Дуэты
  - (29 октября 2011): Финал

# «ПРИЗРАК ОПЕР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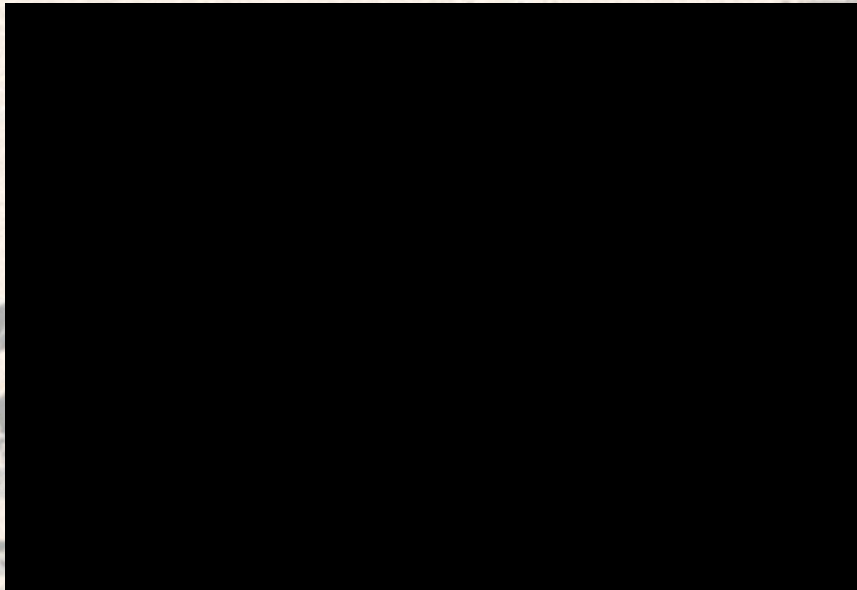
# КОНЦЕРТНЫЙ ДУЭТ «КОШКИ»

22 октября 2011



# «ДВЕ ЗВЕЗДЫ»

- 폴리나가 2013년에 출연(2위)
- 2006년부터 시작
- 불후의 명곡, 나는 가수다



▶ Л.Агутин, Ф. Добронравов - Прощальная песня

# «ДВЕ ЗВЕЗДЫ»



# Outro



##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Анна Шулепова**

(한국외국어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술레포바 안나 라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외국인으로써 이해하기 힘든 점,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 등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느낀 한국의 특징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제 개인 경험을 통해 서술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에 처음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제가 느낀 한국과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많은 관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알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생각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역시 많은 학생들처럼 앞으로 대학교에 다닐 학과 그리고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도중에 저한테 제일 맞고 관심 있는 분야로서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본 뒤 한국어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성적 받을 학생들에게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생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에 가고 싶은 꿈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 더 간절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반도를 방문하고 싶은 학생들이 매우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기회가 있는 친구들이 역시나 한 두 명 정도 밖에 안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부분 학생들의 문제는 역시나 물질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제 눈 앞에 있던 문제들과 오직 안 될 형편 보일 뿐이었습니다. 꿈 꾸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그림의 떡과 같은 이루어지지 못할 꿈의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신 그 작은 말씀을 항상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왔을 때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국어 학과에 다니다가 한국에 장학생으로 올 수 있는 시험을 보고 기쁘게도 우수한 결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짐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하더라도 그 문화적 차이가 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각보다 많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전에 느껴보지 못한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들이 제 얼굴을 뜨겁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나, 아니면 그냥 슈퍼에서 물건 살 때, 밖에서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동시에 살펴보는 느낌이 무엇인가 이해 안 되었고 때로는 조금 무서운 느낌도 들 정도였습니다. 역시 타인을 살펴 보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키르기즈스탄과의 문화 차이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때는 정말 좋아해서 책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한국 그리고 직접 와서 경험한 한국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향에서 경험하지 못 한 사람들의 눈 빛부터, 다르게 하는 행동과 생활, 모든 것이 매우 다르고 신기했지만 도대체 왜 계속 쳐다보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알아볼까 고민하다가 참다 못해 궁금증을 풀리기 위해 학교에 다녔던 같은 한국어 교육 학과 한국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일반적이며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 못이 있길래 길 거리에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뚫어지게 저다 볼까? 내가 온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을 이유 없이 저다 보면 예의가 아닌 실례가 되는 문화이고 사실 공공 장소에서 부정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저다 보기도 하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무엇을 잘 못한 행동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답답해서 물어봤더니, 친구가

“아! 이것은 네가 우리와 틀리게 생겼고 우리와 틀리게 행동하는 외국인이라 다들 그냥 궁금해서 저다 보는 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을 들었더니, 궁금증이 풀리기는커녕 무엇을 잘 못 해서 틀린 점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의 또 다른 대표적인 점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말을 뜻하는 표현이고,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한국으로 처음 온 저에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민족 이름이나 나라 명칭 대신에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말고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우리 친구”, “우리 땅”, “우리 회사” 등. 이와 같은 표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신랑”, “우리 남편”이나 “우리 마누라”와 같은 고유 한국적 표현들이 정말 재미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가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자연스럽게 못 쓰는 표현들입니다.

한국에 오기 몇 년 전부터 한국어 학과에 입학해서 한국어를 배웠지만 그 때 한국 민족은

얼마나 보수적인 민족인지 잘 알지는 못 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한국인들이 쓰는 위와 같은 표현들 통해 그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우리와 틀리게 생겼고 우리와 틀리게 행동하는 외국인”이라는 말로 설명한 한국 친구뿐 만 아니라, 이 표현을 흔히 쓰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주 쓰는 한국인들의 이 표현을 통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잘 못 사용하는 경우 많은데 그것은 “우리와 다르면 틀리다!”는 한국인들의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 같지 않은 것뿐이지 틀리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표현을 잘 못 쓰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보수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을 그때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또 다른 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해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신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이러한 성향을 더욱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틀리다’는 생각을 하나 더 경험하게 되었는데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지 ‘틀리다’는 표현을 외국인들한테 더 자주 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와 민족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의 가족에서 큰 반대가 없었지만 남편의 가족에서는 큰 반대를 했었고 제가 무엇을 그렇게도 잘못 했는지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경상도 분이시라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셨던 것이었는데, 저도 막상 한국어 교육 학과를 졸업했고 이곳에 살면서 한국 정서와 문화를 경험해보니 이런 선입견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들한테 오직 좋은 것만 바라시면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과 모든 것이 같지 않는 다른 나라 여자가 한국 가정에 들어오는 일은 큰 문제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시 외국인이라면 한국인들과 “틀리다”라는 대부분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르르키즈스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다를 것뿐이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국제 결혼을 해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믿고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외국인들처럼 다시 고향으로 귀국할 생각이었지 여기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제가 항상 꿈꾸던, 저와 모든 것이 닮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남자 또한 저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한국 남자를 만났을 때부터 한국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해 열심히 살기 시작했고, 부모님들은 저희들의 이러한 의지를 보면서 조금씩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시

고 예뻐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믿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아무리 보수적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많이 다른 문화를 갖은 외국인들을 낯설게 생각해도 그들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따뜻한 정과 배려를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신혼 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점점 더 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한국의 독특한 대표적인 문화가 한국말 그 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언어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즉 ‘다르다’ 라는 표현 대신에 ‘틀리다’로 표현하는 이유를 제 개인적 경험을 통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와 언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많은 문화가 들어와서 서로 더불어 살고 틀리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으로써 사이 좋게 살고 같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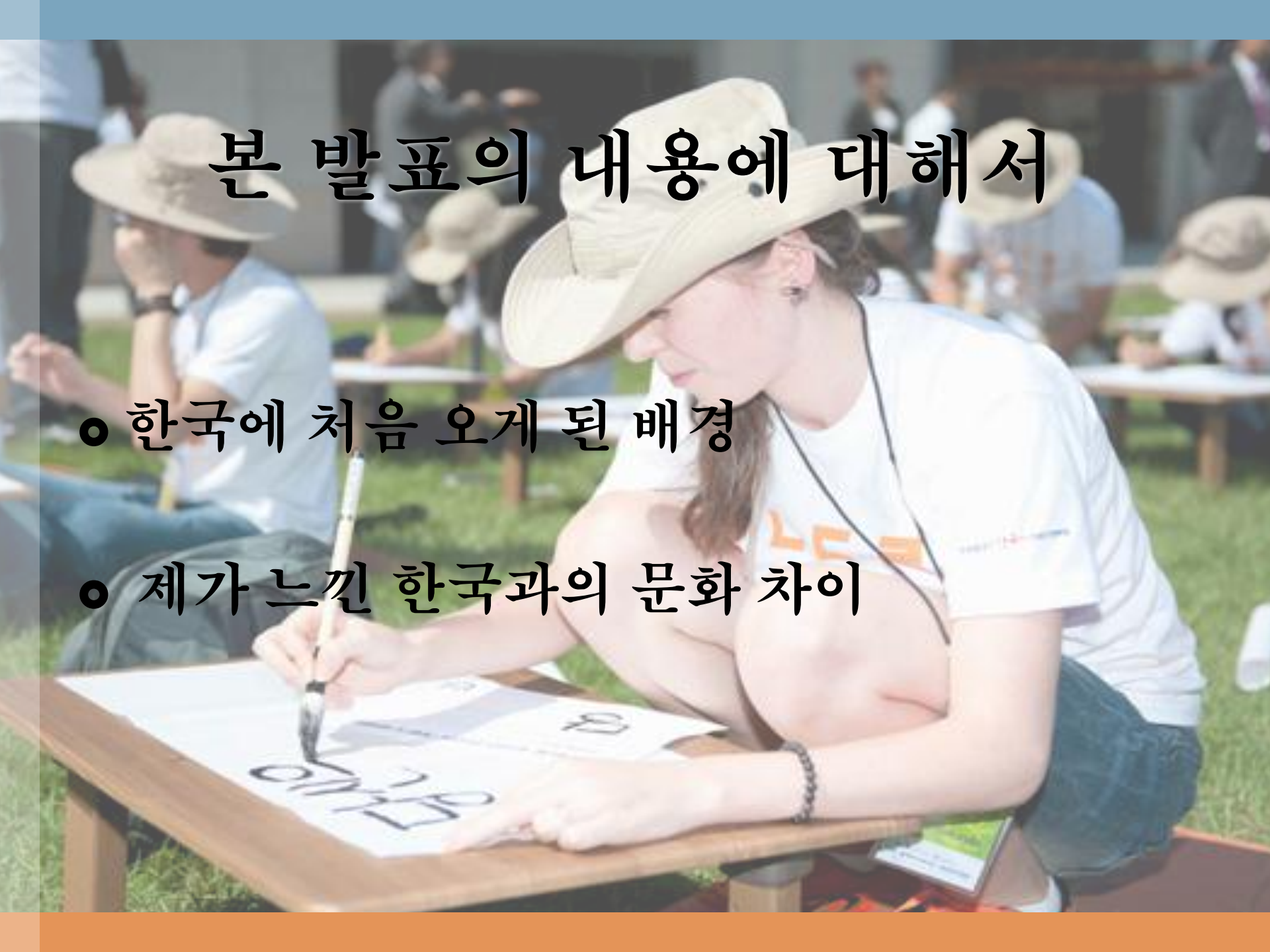
A photograph of a blue and white stuffed bear sitting in a red toy car. The bear has a blue body and white face and paws. It is positioned in the driver's seat of the car, which has a red frame. The background is a blurred outdoor scene with green grass and trees.

#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름: 술레포바 안나(Shulepova Anna)  
출신국: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소속: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국제 지역 대학원)

# 본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 한국에 처음 오게 된 배경
- 제가 느낀 한국과의 문화 차이



#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 생겼다

어렸을 때 제 고향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후 많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저 역시 많은 다른 학생들처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저한테 제일 맞고 관심 있는 분야는 역시 한국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한국은 기회의 땅

- 하지만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역시 한두 명 밖에 안 되는 벼chan 상황이었습니다

# 찾아온 기회

고향에서 비취케크 인문 대학의 한국어  
학과에 다니던 중 마침내 기다리던  
한국으로 갈 장학생 선발이란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고 보란 듯이 우수한  
결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  
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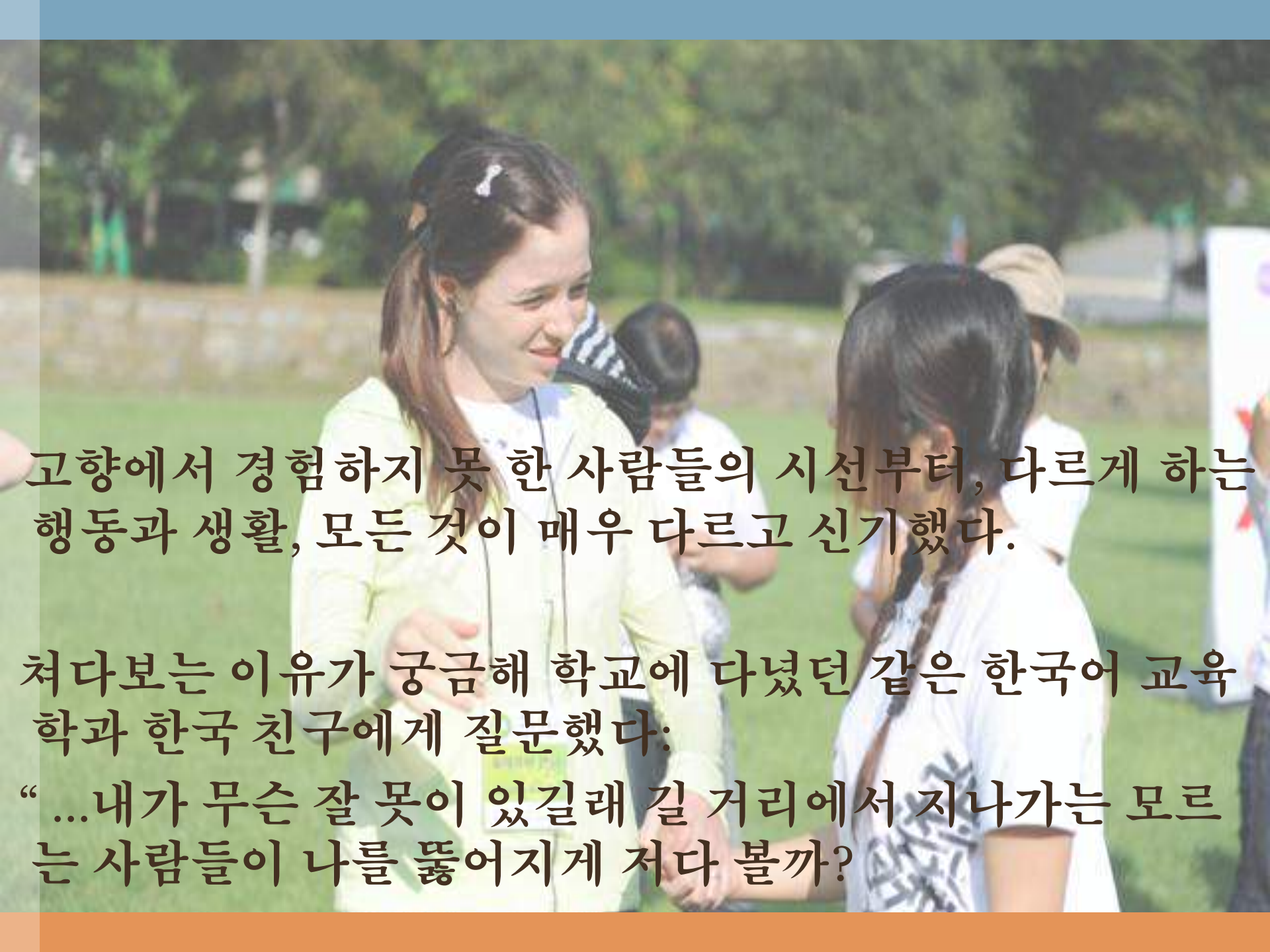
# 기대와 현실이 달랐던 상황

- 처음에는 한국에 와있다는 기쁨보다는 양국간의 문화적 차이가 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각보다 많이 낮설었다.
- 전에 느껴보지 못한 한국 사람들의 낯선 시선들이 제 얼굴을 뜨겁게 만들기 시작했다.

고향에서는 한글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모두 좋아서 책  
과 선생님의 이야기에 푹 빠질 만큼 머리로 배웠던 한국  
그리고 막상 직접 와서 경험한 현실 속의 한국은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게 되었다.

당신을 빛나게  
해줄 아름다운  
한글

안나  
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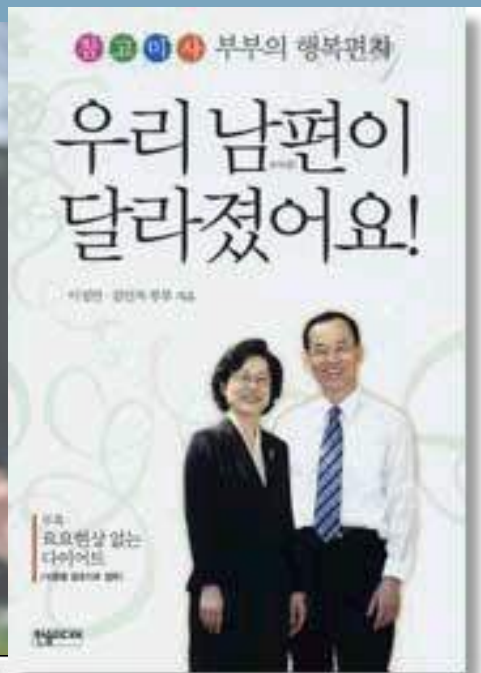
고향에서 경험하지 못 한 사람들의 시선부터, 다르게 하는 행동과 생활, 모든 것이 매우 다르고 신기했다.

처다보는 이유가 궁금해 학교에 다녔던 같은 한국어 교육 학과 한국 친구에게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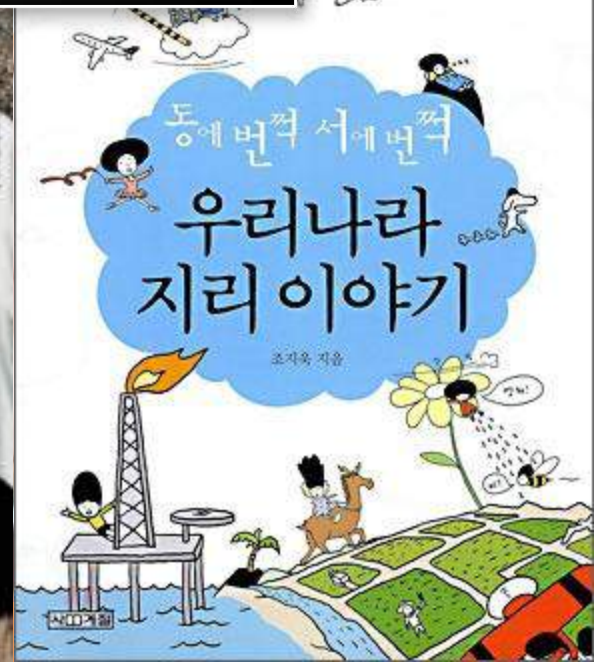
“...내가 무슨 잘 못이 있길래 길 거리에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뚫어지게 저다 볼까?



친구가 저에게 말하  
기를,  
"네가 우리와  
틀리게 생겼고  
우리과 틀리게  
행동하는  
외국인이라 다들  
궁금해서 저다 보는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



## 자주 쓰는 “우리”라는 표현



타 리 타  
타 리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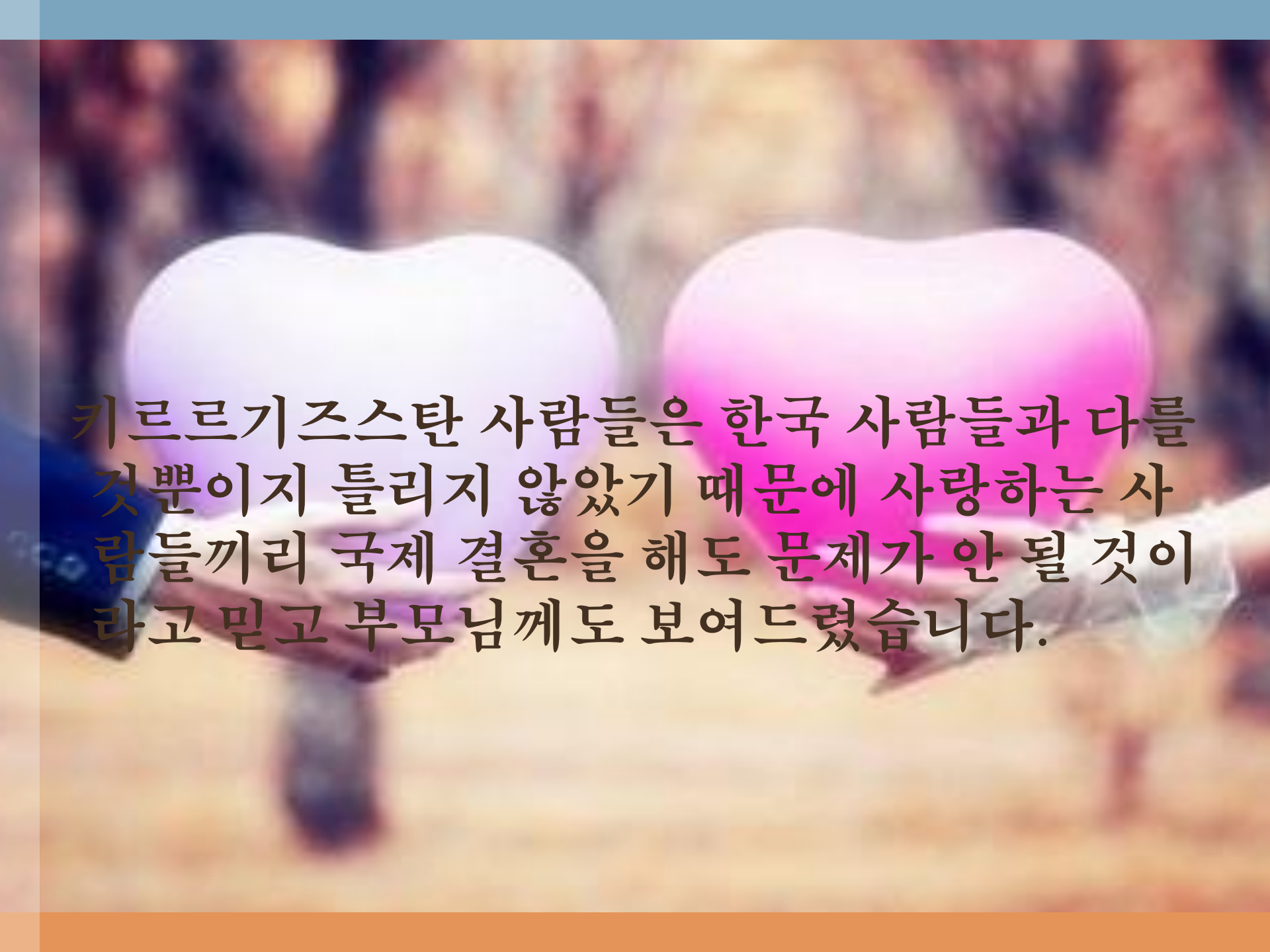
vs

타 리 타

- 두 가지 단어를 잘 못 사용하는 경우 많은데 그것은 “우리와 다르면 틀리다!”는 한국인들의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서로 다른 것은 같지 않다는 것뿐이지 “틀리다”라 고는 말 할 수 없다.

- 한 민족으로만 구성되어, 오랜 시간 한민족끼리만 지내온 배경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 표현을 잘 못 쓰는 생각 .

A close-up photograph of two hands holding two heart-shaped balloons. The hand on the left holds a white balloon, and the hand on the right holds a pink balloon. The background is a blurred crowd of people, suggesting a public event or festival. The text is overlaid on the center of the image.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다를  
것뿐이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  
람들끼리 국제 결혼을 해도 문제가 안 될 것이  
라고 믿고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습니다.

A close-up photograph of a bride and groom. The bride is on the left, wearing a white strapless wedding dress with a lace collar and a long veil. She is smiling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groom is on the right, wearing a black tuxedo with a white shirt and a white bow tie. He is also smiling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background is bright and out of focus.

한 명의 한국 남자를  
만났을 때부터 한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문화가 한국말 그 자체에서도 나타나다.

‘타린’ 것은 ‘트린’ 것이  
아니어요



**I  
KOREA**

**KOREA**